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2015년 7월호

리아호나

개척자 유산: 영혼의 닳인 희망, 14쪽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 조셉의 생애에서 배우는 교훈, 20쪽
사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방법, 26쪽
성전에 가기 위해 준비함, 56, 76, 78, 79쪽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마태복음 7:24~25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모든 것 잘되리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심

특집 기사

- 14 개척자: 우리 시대의 닷
마커스 비 내쉬 장로
개척자 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닷이 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 20 몰몬경의 출현
매튜 에스 홀런드
조셉 스미스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강력한 도구가 되기 위해
완전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26 의로움의 보상을 거둬
쿠엔틴 엘 쿡 장로
우리는 가정에서 어떻게 의로움의
보상을 누릴 수 있을까요?
- 34 종교와 정부
윌포드 더블유 앤더슨 장로
후기 성도는 어디에 살든 훌륭한
시민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본부 기사

- 8 2015년 4월 연차 대회 노트
- 10 우리의 믿음: 교회 조직은 신성하다
- 12 교회 소식
- 38 후기 성도의 소리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어린 양과 목자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표지
 앞 표지 삽화: 덴 버. 앞 표지 안쪽 사진: 로비
 조지/내셔널 지오그래픽 크리에이티브.
 앞 표지 안쪽 사진: 리차드 엠 롬니.



- 42 생기와 활기로 가득 채우라
랜덜 에이 라이트
여러분의 삶에 이 습관을 적용한다면,
더 나은 건강, 더 힘찬 활력, 더 큰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46 헝가리의 굳센 기둥
맥켈 조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희망과
신앙과 힘을 얻는 헝가리 청년 성인들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단서: “나
성전보고 싶어...”
가사를 끝까지
살펴주세요.



- 48 예수 그리스도—평강의 왕
러셀 엠 넬슨 장로
참되고 항구적인 평강의 유일한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 51 해답을 찾아서
- 52 멜기세덱 신권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신권에 속한 맹세와 성약에 관해 더
알아보기
- 56 주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켄트 에프 리차즈 장로
영적 성숙도가 높아지면, 여러분은
성전에 가고자 하고,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 준비하고자 열망하게 될
것입니다.
- 60 용서할 방법을 찾기 위해
보니 브라운
고통을 내려놓기가 불가능해 보일 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 62 포스터: 빛을 던져 주어라
- 63 내 삶의 음악
사브리나 드 수사 테이세이라
나는 재능을 나누는 데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다.



- 64 저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습니다
후안 에이 우세다 장로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분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 66 안나의 여행
제시카 라슨
미국에 도착했을 때, 안나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 순간
안나는 기도하라는 어머니의 조언이
생각났다.
- 70 하나님 아버지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조지 알
나는 금식과 기도로 내 사춘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 71 음악: 날 따르라
존 니콜슨 및 새뮤얼 맥버니
- 72 경전 속으로: 달란트의 비유
진 빙엄
- 74 우리들 이야기
- 75 성전 카드
- 76 성전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하나요?
캐럴린 콜턴
- 78 언젠가 갈 거야
메리 엔
저는 성전에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 79 특별한 증인: 성전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닐 엘 앤더슨 장로

2015년 7월호, 제52권, 제7호

리아호나 12567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위원장: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심사도 위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라셀 앤 벨스, 델린 에이치
소스, 엠 라셀 벨라드, 리차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앨런더슨

편집인: 크레이그 에이 카든

교문: 머빈 비 아놀드, 크리스토퍼 글든, 래리 알 로렌스, 제임스 비 마르티노,
조셉 더블유 시다타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티 워너

운영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트 캐넌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출판 담당자: 리사 캐롤리나 로페즈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브리트리니 비베리, 데이비드 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튼, 로리 풀러, 게릿 에이치 가프, 라린 포터 건트,
민디 앤 레넷, 마이클 알 모리스, 셸리 존슨 오데커, 조슈아 제이 퍼커, 켈
핀브로우, 리차드 엘 롬니, 폴 벤덴버그, 머리스 워튼

편집자 인턴: 엘리스 텐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크노튼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러스, 맨디 벤들러, 시 킴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네이트 지네스, 콜린 핑클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킵 엠
무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브래드 테어, 케이 니콜 워렌호스트

지식 재산 코디네이터: 클레트 네베커 요운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제작 팀: 콘니 바솔프 버릿지, 줄리 버넷, 캐티 던컨,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데니스 카비, 지니 제이 님슨, 가일 터데 러퍼티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

배부 책임자: 스티븐 알 크리스텐슨

미국, 캐나다 외 지역에서는 store.lds.org에서, 또는 현지의 교회 배부 센터,
혹은 와드, 지부 지도자에게 리아호나를 신청하거나 구독료를 문의하십시오.

통권: 제52호, 제52권, 제7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5년 7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 및 번역 책임자: 백길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or.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이메일: liahona-korea@ldschurch.org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교회 잡지 구독 신청서(Excel))는 www.lds.org "물품신청" 교회 잡지

구독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70-4816-25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ds.org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제출하거나, 이메일

주소 liahona@ldschurch.org 혹은 다음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Liahona,

Rm. 2420,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자)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5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시각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July 2015 Vol.39 No.7.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707.4.12.5).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
0368, USA.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 시간에 활용할 만한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그 두 가지 예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물문경의 출현", 20쪽: 조셉 스미스는
개인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구주를
따르기 위해 힘씀으로써,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었다. 우리도 발전하고 좀 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 힘쓸 때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될 수 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개인 목표와 가족 목표를 몇 가지
세우는 것에 관해 생각해 본다. 가족들 각자의
장점과 재능에 대해 토론했고 보고, 서로의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그 장점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했던 것처럼 주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각자의 장점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본다.

"안나의 여행", 66쪽: 가족들이 가족 역사에서
이야기들을 발견하고 보존하도록 돕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다. 조부모와 이야기하거나
가족 일지와 다른 문서들을 읽거나
FamilySearch.org를 검색하는 계획을
세워 보는 것도 좋다. 그런 다음, 가정의
밤에서 찾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여러분의
조상들은 어떤 영웅들이었는지 이야기해
본다. FamilySearch.org의 "추억"에 찾은
이야기들을 올리면 어떻게 고려해 본다.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의 첫 쪽을 나타냅니다.

가정 복음 교육, 51, 80

가족, 26, 64, 66

개종, 39,

개척자, 4, 14, 66

건강, 42

경전, 20, 40

계시, 42

교회 조직, 10

금식, 70

기도, 64, 66, 70

낙관주의, 4

단합, 14

물문경, 20

방문 교육, 80

변역, 26

성전, 56, 75, 76, 78, 79

소망, 14, 46

시련, 20, 40, 66, 70

신권, 52

신앙, 14, 20, 38, 40, 41, 63, 66,

70

예수 그리스도, 48

용서, 7, 51, 60

의로움, 26

일, 4

자비, 7, 20

재능, 63, 72

정부, 34

정직, 38

조셉 스미스, 20

종교, 34

평화, 26, 40, 48

행복, 26



광야의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두 힘을 합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모두가 이해하고 있었던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료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과, 솔트레이크밸리에 도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목적과 목표가 날마다 분명했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과 매일의 진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원하는 것의 대부분을 너무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우리 시대에는 앞길이 조금이라도 평탄치 않거나 앞 언덕의 경사가 가파르게 보이면 비켜나거나 포기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병마와 역경, 고통, 죽음을 감수하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단념하지 않았던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고무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을 해 나갈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에 깊이가 더해지고 강화되며, 자신의 신성한 본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타인을 더욱더 연민하게 된다는 것을 개척자들은 배웠습니다. 이런 습관은 그들의 심성을 굳건하게 했고, 평원과 산맥을 넘어 여행이 끝난 후에도 오래도록 축복이 되었습니다.

낙관주의

세 번째 교훈으로, 개척자들은 이렇게 소리 높여 노래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어서들 나가자”(영어 찬송가에는 with joy[기쁜 마음으로]라는 가사가 있음-옮긴이)

우리 시대의 큰 모순 가운데 하나는, 넘치도록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몹시 불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이로운 번영과 기술은 우리를 압도하며, 안전과 오락, 즉각적인 만족과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방에서 너무나도 많은 불행을 봅니다.

그토록 많은 희생을 치렀던 개척자들은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물품조차 없이 지내며 굶주렸습니다. 그들은 행복이 운이나 우연한 결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모든 바람이 이뤄지는 데서 오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행복은 외적인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관계없이 우리의 내면에서 오는 것입니다.

개척자들은 그것을 알았으며, 그러한 정신에 따라 그들은 시련이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모든 상황과 시련 속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시련

우리는 때로 개척자들이 견뎌 낸 일을 돌아보다가 안도하며 “그 시대에 살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여러분이 방문한 사람들과 함께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찬송가, 16장)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지인이 동정심과 일, 낙관의 원리를 적용한 사례를 나눈다. 영의 속삭임이 있을 때에는 이런 원리에 따라 생활하는 데서 오는 축복을 간증하고, 방문 대상자에게 그들도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해도 좋다.

그런데 저는 그 용감한 개척자들이 오늘날의 우리를 볼 수 있다면 같은 염려를 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시대와 환경이 바뀌었지만, 시련에 맞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서로 보살피고 번영하는 공동체로 함께 성공적으로 나아가는 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개척자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뢰를 지니는 법을 배웁니다. 또한 타인을 안타까이 여기는 법을 배우며 일과 근면이 현세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축복이 됨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개척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 보여 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충실함, 동정심, 동료에 대한 사랑, 근면, 낙관, 기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고귀한 개척자들과 손을 맞잡고 목소리를 더하여 함께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 잘되리! 모든 것 잘되리!” ■

청소년

기록 작성

우 흐트도르프 회장은 우리 시대를 개척자 시대에 비교했다. 비록 평원을 횡단해 본 경험은 거의 없을 테지만,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개척자와 비슷한 면이 많다. 또한 여러분 역시 동정심을 보이고, 열심히 일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다. 그런 개척자들의 특성을 그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 우리가 배우듯이, 여러분의 후손도 여러분이 남기는 일지를 통해 여러분을 알게 될 수 있다.

단 몇 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일지에 자신에 관해 조금씩 기록해 보도록 한다. 간증을 어떻게 얻었는지, 또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등 영적인 이야기들을 기록할 수 있다. 또한 (언젠가 일지를 읽을지도 모를) 후손들이 여러분의 일상 생활은 어떠했는지 알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의 방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가족과 함께한 가장 즐거웠던 추억은 무엇인가?

매일 조금씩 적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척자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매일의 삶을 헤쳐 나가도록 그분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기록은 미래의 후손에게 남겨 줄 유산이 될 것이다.

어린이

개척자들의 모범을 따라서

우 흐트도르프 회장은 개척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보인 몇 가지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개척자들의 모범을 따를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실천하며 시작해 보세요.

동정심

- 슬퍼하는 사람에게 친절함 쪽지를 쓰거나 친절하게 대해 주세요.
- 반 친구의 숙제를 도와주세요.

일

- 목표를 세우세요.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이번 달에 매일 해 보세요.
- 부모님의 저녁 준비를 도와주세요.

낙관주의

- 여러분의 생활에서 행복한 일 10가지를 목록으로 만들어 보세요.
- 만나는 사람들에게 방긋 웃는 얼굴을 보여 주세요.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무엇을 나눌지 알기 위해 간구한다. 구주의 생애와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을 믿는 신앙을 키우고, 방문 교육을 통해 여러분이 돌보는 자매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 더 자세한 내용은 reliefsociety.lds.org에서 알아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심

구주의 거룩한 성품을 소개하는 방문 교육 메시지 연재 기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로우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자비를 보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십니다.”라고 말씀했다. “그분의 생애는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아픈 사람을 고치고 억압받은 사람을 일으키며 죄인을 구하셨습니다. 결국 분노한 폭도들이 그분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울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는 말씀은 필멸의 삶에서 보여 주신 동정심과 사랑의 백미입니다.”¹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누가복음 6:36)고 당부하셨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우리 죄에 대한 용서에는 조건이 따릅니다.”라고 말씀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 우리 모두는 언젠가 속죄소에 겸손하게 나아가 은혜를 구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한 실수나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영혼의 모든 힘을 다해 자비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 그리스도의 속죄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치유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²

보충 성구

마태복음 6:14~15; 누가복음 6:36~37; 엘마서 34:14~16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사랑-복음의 정수”,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91쪽.
2.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궁홀히 여기는 자가 궁홀히 여김을 받습니다.”,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70, 75, 77쪽; 강조체 첨가.
3. 제프리 알 홀런드, “왕국의 평화로운 것들”, *리아호나*, 1997년 1월호, 83쪽.

생각해 볼 점

용서함으로써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신앙, 가족, 구제

성구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³ 탕자의 이야기는 한 아들은 용서받고 다른 아들은 용서하기 힘들어하는, 용서의 양면을 보여 준다.

작은 아들은 유산을 물려받고 순식간에 탕진한 후, 배가 고파 돼지 치는 일을 했다. 경전에는 그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자신은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용서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었다. 밭에서 일하다 돌아온 맏아들은 화가 났다. 맏아들은 자신이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명을 어겼던 적이 없었는데도 “염소 새끼라도 주어 …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고 아버지에게 따졌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다.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누가복음 15:11~32 참조)

2015년 4월 연차 대회 노트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2015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다음 내용(그리고 앞으로 리아호나에 실릴 연차 대회 노트)을 활용하여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 교회 여러 지도자들이 전한 최근 가르침을 공부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약속



귀중한 성전의 축복

“성전에 갈 때, 그곳에서 맺은 성약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그러한 유혹을 더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시련을 더 잘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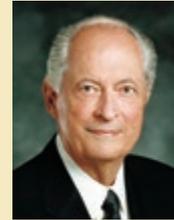
성전의 축복은 대단히 귀중합니다. 제가 살면서 매일 감사드리는 것은 제 사랑하는 아내 프랜시스와 제가 신성한 제단에서 무릎을 꿇고 저희를 영원히 함께 묶어 주는 성약을 맺었을 때 받은 축복입니다. 저는 아내와 제가 다시

함께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받는 평안과 위안보다 제게 더 소중한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성전 예배의 영을 지니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며, 우리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정성스럽게 따르기를 간구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성전의 축복”,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93쪽.

교리 살펴보기



종교적 자유의 초석

“이 마지막 날에 영적인 자유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선택의지를 충실하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종교적 자유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

후기 성도들이 의지하고 수호해야 할 종교적 자유의 네 가지 초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자유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 믿는 것으로 개인이나 정부로부터 비난을 듣거나 박해를 받거나 공격당해서는 안 됩니다. ...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자유입니다. ...

세 번째는 종교적 조직, 즉 교회를 구성하고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예배할 자유입니다. ...

네 번째는 우리의 신앙대로 생활할 자유, 즉 가정이나 예배당뿐 아니라 공공 장소에서도 자유롭게 신앙을 행사할 자유입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선택의지를 보호하고 종교적 자유를 수호하십시오”,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12쪽.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우리는 선언문에서 가르치는 세 가지 원리를 확고히 수호해야 합니다.

...

결혼, 부모, 가정의 수호자로서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일조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용감하고 굳건하며 확고부동한 용사가 되어 그분의 계획을 지키고 그분의 진리를 다가올 세대에게 가르치기를 바라십니다.”

보니 엘 오스카슨, 본부 청녀 회장, “가족 선언문의 수호자”,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5~16쪽.



1. 남녀간의 결혼



2.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



3. 가정의 신성함

결혼과 가족에 관한 2015년 4월 여성 총회의 기사를 더 보려면, 웨일 에이 에스플린, “우리의 가정을 빛과 진리로 채웁시다”, 8쪽, 그리고 캐롤 엠 스티븐스, “주님 가족 주셨네”, 11쪽을 참고하십시오.



연차 대회에서 발췌한 훌륭한 이야기

훌륭한 이야기보다 우리의 이목을 더 잘 끌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다음은 연차대회에서 사용된 많은 이야기 중 세 개입니다.

-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토양인가? 여러분이 어떤 토양인지를 알게 될 때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가?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32쪽 참조.
- 어떤 가슴 아픈 경험이 한 젊은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로즈메리 엠 워숨, “다시 찾은 신앙”, 93쪽 참조.
- 계곡의 절벽에서 길을 잃어버린 두 형제의 극적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이해력을 어떻게 넓혀 주는가?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하나님 지혜와 사랑”, 104쪽 참조.

conference.lds.org에서 연차 대회 말씀을 읽거나 시청 또는 청취할 수 있습니다.

교회 조직은 신성하다

교회에 새로 들어온 회원들은 신권 열쇠, 성별, 안수례,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상호 향상 모임, 상호부조회 등 전에는 들어 보지 못한 용어를 자주 듣게 된다. 아울러 집사, 축복사, 감독, 보좌, 성찬, 부름, 해임, 간증, 의식 및 그 밖의 여러 가지 익숙한 용어가 생소하게 사용되는 것을 본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교회에 참석하고, 경전과 공과 자료를 공부하며, 교회 회원들과 사귀어 가면서 이런 용어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는 동안 와드 또는 지부 회원들에게

망설이지 말고 질문하라. 회원들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기쁘게 설명해 줄 것이다.

경전과 현대의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계시에서 나온 이런 용어들은 교회의 교리, 정책, 관행 및 조직을 나타내므로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구주께서는 그분의 뜻을 제일회장단(교회 회장과 두 보좌)과 십이사도 정원회에 계시하여 교회를 인도하신다. 또 이 교회는 기본적으로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조직된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조직되었다.(신앙개조 제6조 참조) 우리에게는 성경 시대처럼 선지자, 사도, 칠십인, 둘씩 다니는 선교사들, 감독 및 기타 현지 지도자들이 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모두

자원 봉사자이다. 이들은 지도자가 받는 영감에 따라 (봉사하도록 요청받는) 부름을 받는다. 때가 되면 봉사할 책임이자 기회가 되는 부름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그 부름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능력을 다해 수행한다면, 주님은 그분의 자녀를 섬기는 여러분의 노력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배경이 어떻든, 여러분은 소중한 영의 은사를 바칠 수 있다. 여러분은 교회 회원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다.(고린도전서 12장 참조) 여러분의 기여는 교회가 기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자세한 사항은 모로나이서 6장; 교리와 성약 20편 및 [lds.org/topics](https://www.lds.org/topics)에 나오는 “Church Organization”을 참조한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 2:19-20

와드의 지도자들은 회장단(회장과 두 명의 보좌)을 이루어 봉사한다.



감독과 두 보좌는 감독단을 구성하고 와드를 감리한다.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와드의 여성들에게 봉사하며 자매들이 그들의 가정을 강화하는 일을 돕는다.



장로 정원회 회장단과 대제사 그룹 지도자들은 와드의 남성들에게 봉사하며 그들이 자신의 가정을 강화하도록 도움을 준다.



초등회 회장단은 어린이들에게 봉사하며 청년 및 청년회 회장단은 12세부터 18세 사이 청소년들에게 봉사한다.



주일학교 회장단은 주일학교 반을 감독하며 와드의 복음 학습이 향상되고, 회원들이 가르침을 잘 배우도록 돕는다.

교회 소식

news.lds.org에서 더 많은 교회 소식과 행사를 볼 수 있다.



후기 성도 자선회: 30년의 봉사

이 옷을 위한 봉사는 새로운 원리가 아니다. 전 세대를 걸쳐 교회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데 헌신해 왔다.

그러한 헌신은 30년 전인 1985년 1월 27일, 교회 회원들이 에티오피아에서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미화 6백만 달러를 금식 헌금으로 기부했을 때 잘 나타났다. 이 일은 후기 성도 자선회의 시초가 되었다. 같은 해에 후기 성도들은 11월에 또 한 번 금식에 참여해, 기아 구제에 쓰일 5백만 달러를 모금했다. 이 두 금식은 우리 시대에 주님의 사업을 크게 촉진시켰다.

그 금식 이래로 30년 동안, 교회는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위해 12억 달러를 기부해 왔다. 여기에는 식량, 보호소, 의약품, 의복 및 기타 구제 물품도 포함된다.

또한 후기 성도 자선회는 휠체어와 맑은 물, 시력 보호, 신생아 소생법 훈련, 면역, 가족의 영양소 섭취 등의 활동을 통해 장기적 원조를 제공해 왔다. 교회는 기부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평판이 좋은 다른 인도주의적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교회의 회원인 우리는, 굶주리고 거처가 없고 탄압받는 사람들을 도울 의무가 있다고 자주 가르쳤다. 교회 회원들은 이 과제를 훌륭히 수행해 왔다. 공식적인 감사나 환영행사 없이도, 회원들은 수백만 시간의 봉사와 수억 달러를 소리 없이 기부한다. 회원들은 헌금으로 인도주의적 지원 기금을 내는 것 외에도 LDS 자선 단체에 기부하고, 선교 사업에서 봉사하며, 이웃에게 진절할 친구가 되어 주고, 지역 사회 또는 복지

시설에서 자원 봉사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사회의 기관에 자신의 시간과 사랑을 바쳤다.

그렇게 회원들은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라는 구주의 가르침을 성취하기 시작한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35, 40) ■



성전에서 가족을 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가 족이 함께 성전에 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성전 침례실에서 긴 시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대리 침례를 예약할 수 있는 특정 시간이 매주 따로 정해졌다. 여러분 지역의 성전에 전화하면, 시간 확인과 예약 문의를 할 수 있다. ■

가족들을 위한 도움

자 녀에게 외설물 대처법을 가르치는 부모들을 돕기 위한 가정의 밤 공과가 새로 만들어졌다. 공과에는 **overcomingpornography.org/resources**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몸”, “성신은 내가 좋은 매체를 선택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외설물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주는 외설물로 인한 상처를 용서하고 치유하시고자 한다”, “성적인 관계는 성스럽고 아름다운 관계이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는 토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특별한 순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

LDS.org 기능 개선

올 초, LDS.org는 하얀색 배경과 파란 메뉴 화면으로 변경되는 것 외에도 많은 기능이 개선되었다.

국가 및 언어 선택란이 기존의 언어 선택란을 대체했으며 이 선택란을 통해 회원들은 자신의 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국가별 교회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국가별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LDS.org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탐색 메뉴(경전, 가르침, 자료, 소식)가 포함된다. 이러한 변화로, 회원들은 검색을 할 때 국가별 홈페이지와 LDS.org를 따로 열 필요가 없게 되었고, 자국의 자료와 교회 전체의 자료를 모두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가정 밤에 기념비적인 날

가 정 밤은 2015년에, 두 가지 주요 역사를 기념할 것이다.

100년 전에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 회장과 그의 보좌들은 교회 회원들에게 가족이 함께 발전하고 배울 수 있는 저녁 시간을 따로 마련하라며 강력히 권고했다. 그들은 이 권고에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정에서 더 큰 사랑과 부모에 대한 더 큰 순종을 목격하게 되리라는 약속을 주었다. 가정의 밤에 대한 개념이 새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1915년 4월 27일에 있었던 그런 제일회장단의 격려 덕분에 가정의 밤은 더욱 널리 확산되게 되었다.

그리고 50년 전,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회장은 가정의 밤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1965년 1월에 그는 각 가정에서 매주 가르칠 수 있는 공과가 실린 가정의 밤 공과책을 처음으로 출간했다. 1970년에는 월요일 저녁이, 권장하는 가정의 밤 시간으로 정해졌다.

가정 밤이 시행된 지 100년이 지났고, 또 그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된 지 50년째가 되는 올해, 가정의 밤은 여전히 교회 회원들 사이에 중요성을 잃지 않고 남아 있다. ■



마커스 비 내쉬
장로
칠십인

개척자: 우리 시대의 닷

개척자들과 그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지지하고, 구원하고, 구조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신앙과 소망의 결과로 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에
감화된 아이잭 바틀렛
내쉬(위 사진 오른쪽 사진)는
솔트레이크시티의 성도들과
합류하고자 고국 웨일즈를
떠나 대서양을 건너고 평원을
횡단했다.

제 아내 셸리의 조상인 웰사 브래드포드 해치와 그녀의 남편 이라는 1832년에 미국 뉴욕 주 세네카 호수 근처에 있는 팜스빌이란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선교사 올리버 카우드리와 팔리 피 프랫이 해치의 집을 찾아왔을 때 웰사는 물몬경을 구입해서 곧바로 읽었습니다. 물몬경이 참됨을 확신한 그녀는 침례를 받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점증하는 박해와 태어날 아기 때문에 적당한 때를 기다리도록 당부했습니다. 웰사는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침례를 받았는데, 두껍게 얼어붙은 강의 얼음을 잘라 낸 후에야 의식이 행해졌습니다.¹

이라는 복음 메시지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더 알고 싶었고 커틀랜드 성전을 짓는 데 자신도 참여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만나기 위해 웰사와 마차를 타고서 미국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로 갔습니다. 커틀랜드에 도착한 그들은 가까운 숲으로 가면, 사람들과 함께 별목을 하고 있는 선지자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숲에 이르자 한 남자가 도끼를 나무에 박고 그들에게로 걸어와 말했습니다. “해치 형제님, 지난 3일간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형제님이 가져온 돈은 성전 내의 연단을 짓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그 남자는 바로 조셉 스미스였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라는 침례를 받았고, 그와 웰사는 집으로 돌아와 재산을 모두 모아 커틀랜드 성도들과 합류했습니다.²

제 조상 중 한 분인 아이잭 바틀렛 내쉬는 웨일즈에서 교회에 가입했고, 대서양과 평원을 건너서 솔트레이크시티의 성도들에 합류했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한 후에 그는 담배 사용을 규탄하는 교회의 한 감리 장로의 다음과 같은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돼지조차 이 고약한 잡초를 씹는 일이 없는데 이 집회에 모인 장로 중에는 입에 담배를 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배를 씹고 있던 아이잭은 살며시 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담배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아이잭은 다시는 담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³

웰사가 여름까지 기다리지 않고 얼어붙은 강에서 침례받고 싶어하게 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동기로 이라는 뉴욕 주에서 오하이오 주까지 갔으며, 어떤 이유로 아직 회원이 아니면서도 교회가 짓는 성전을 위해 돈을 기부했을까요? 아이잭에게 고국을 등지고 대서양을 건너 평원을 횡단하게 하고, 나중에는 씹는 담배를 자신이 버려야 할 것들 목록에 더할 수 있게 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든 비 힝클리(1910~2008년)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움직였던 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그 힘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물문경의 침뿔을 확신한 웰사
브래드포드 해치는 여름까지
기다리는 대신 얼어붙은
강에서 침례를 받겠다고 했다.**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의 긴 여행을 거쳐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힘입니다.⁴

신앙은 행동의 원리이자 힘의 원리입니다.⁵ 신앙이란 “사물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앨마서 32: 21) 그보다 신앙이란 영의 “확신 (히브리서 11:1, 영어 성경 각주 b 참조)으로, 우리 행동의 원천이며(야고보서 2:17~26; 니파이후서 25: 23; 앨마서 34:15~17 참조), 우리가 구주를 따르고, 희생과 시련의 시기에도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게(이더서 12:4~6 참조) 하는 힘입니다.⁶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이 분명하듯이, 신앙은 좋은 것들이 오리라는 기대인 소망을 낳으며(모로나이서 7:40~42 참조) 우리를 지탱해 줄 주님의 권능을 가져옵니다.⁷

우리 개척자 조상들을 움직였던 힘이 신앙이라면, 그분들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던 것은 신앙에서 나온 소망이었습니다. 모로나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신앙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나니-

그런즉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더 나은 세상, 곧 참으로 하나님 우편의 처소를 바랄 것이요, 이 소망은 신앙에서 비롯하여, 사람의 영혼에 닿아, 그들로 확실하고 굳건하며, 늘 선행이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 하였더라.”(이더서 12:3~4)

자신뿐 아니라 후손을 위해서도 더 나은 것이 오리라는 기대, 곧 소망을 품고 행동하도록 개척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반석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그분들은 확고하고 굳건했으며, 어떠한 궁핍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인도되었습니다. 변함없이 충실한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에게 이 개척자들은 어떻게 닿아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개척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개척자들과 그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지지하고, 구원하고, 구조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신앙과 소망의 결과로 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개척자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성약의 백성인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되며, 우리와 성약을 맺고 “불변하시느니라”(물몬서 9:19) 하나님께서 우리 개척자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을 축복해 주셨듯이 어려운 시련의 시기에 우리를 축복해 주시리라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엘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그의 약속을 다 이루실 것임이니, 이는 그가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그의 약속을 이루셨음이라”(엘마서 37:17)고 가르쳤습니다. 이를 알기에 우리는 개척자들과 마찬가지로 영감을 받아 신앙으로 행동하고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 있고 역동적인 신앙과 우리를 그분의 길에 머무르게 하는 소망이야말로 도덕적, 영적, 현세적으로 격동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는 답입니다.

월리와 마틴 손수레 부대 이야기는 초기 개척자들의 소망과 신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대략 1,000명에 달하는 대원 중 200명가량만 목숨을 잃은 일은 기적입니다.⁸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한 가운데 신앙과 소망에 찬 구조대의 노력이 손수레 부대원들을 구했습니다.⁹

구조대는 솔트레이크밸리를 벗어난 후, 손수레 부대를 삼킨, 바로 그 혹독하고 수그러들 줄 모르는 겨울 폭풍에 맞닥뜨렸습니다. 구조대 일부는 홍포한 자연과 마주하자 신앙이 흔들려, 희망을 잃고 돌아섰습니다.

반면에 레딕 알레드는 위험한 겨울 날씨 속에서 3주간 구조 기지를 꾸준히 지켰습니다. 다른 구조대원이 함께 돌아가자고 설득했을 때 레딕은 거절했습니다.

그는 일지에 “나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리고 … 그에게 대대의 목숨이 우리에게 달렸으니 여기 있자고 권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 마음을 바꿔, 내가 기지

대장이기 때문에 대원들은 신앙의 중심을 내게 두어야 하며, 나더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받아 달라고 말했다. 이에 나는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셨다며 거절했다.”¹⁰

시련의 시기에 그와 같은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간직하면 건실한 남성과 여성이 생겨나며, 길을 잃게 할 힘을 가진 폭풍이 몰아칠 때 분명하고, 변함 없는 방향을 가리켜 줄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열매 중 하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고, 구조하고, 축복할 위치에 서게 할 것이란 점입니다. 손수레 부대가 기지로 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 레딕 알프레드가 느꼈을 따뜻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를 보았을 때 손수레 부대가 느꼈을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보인 단결을 기억하십시오

전반적으로, 개척자들이 단합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역사가들은 후기 성도들의 서부 이주가 다른 미국 서부 이주와는 달랐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이동 중인 마을, 서부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들어 본 적이 없는 절제와 결속, 규율이 있는 마을을 이루었다. …

캘리포니아나 오리건 이주민들은 뒤따라 올 사람들을 거의 마음에 두지 않았다. … 물몬들은 달랐다. 개척자 부대가 맨 먼저 생각한 일은 좋은 야영지, 나무, 물, 목초 등을 기록하고, 거리를 재고,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었다. 이들과 뒤이어 오는 부대들은 허리를 구부려 다리를 짓고 가파른 여울 진입로를 파 내렸다. 이들은 뗏목과 나룻배를 만들어 뒤이어 오는 부대가 사용할 수 있게 남겨 두었다.”¹¹

이런 차이가 난 이유는 교회 회원들이 시온을 건설하기 위해 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시온이란 “모든 사람[이] 자기 형제를 자신과 같이 여기고 [주님] 앞에서 덕과 거룩함을 실천[하느니라]”(교리와 성약 38:24) 곳입니다.



이 세상에는 개척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전 세대 개척자들의 특징인 용기와 목적 있는 담대함을 지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개척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아! 오늘날 이 세상은 얼마나 개척자들을 필요로 합니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지금 이 세상에는 개척자가 필요합니다,” 리아호나, 2013년 7월호, 5쪽.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라 해치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형제님이 가져온 돈은 성전 내의 연단을 짓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감동을 받은 이라는 침례를 받고 아내와 함께 뉴욕에서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로 이주했다.

한마음과 한뜻을 가졌으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는 사람들의 사회인 시온(모세서 7:18 참조)은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웃의 이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순전한 눈으로 모든 일을 행[한]”(교리와 성약 82:19) 결과였으며, 이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공동체 의식과 서로 나누는 책임감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따르고자 하는 단합된 노력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척자들이 성공했던 주된 이유이며, 그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우리 또한 주님의 선지자를 따를 때 공동체 의식과 공통된 책임감을 지니고 행하는 만큼 주님의 권능을 통해 번영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개척자 정신을 물려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녀를 비롯한 후손에게 개척자의 발걸음을 이끌었던 바로 그 기상을 불어넣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순한 교훈을 예과도르 오타발로의 무노즈 가족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2013년 3월에 저는 후안 무노즈와 그의 아내

로라, 아들인 후안 아마도를 만나 그들이 교회에서 보내 온 시간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무노즈 형제가 오타발로에서 가장 초기 개척자 가운데 한 명임을 알았습니다.

무노즈 형제는 어린 소년이었을 때 스페인어로 된 몰몬경 한 권을 얻었습니다. 읽지는 못했지만, 손에 들자 엄청난 힘과 영을 느꼈습니다. 그는 집에 몰몬경을 감춰 두었습니다. 형들이 보면 그것을 없애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따금 몰몬경을 감춰 둔 곳에서 꺼내 받쳐 들고 그 힘을 느껴 보았습니다. 상당한 역경과 반대를 견뎌 내고, 그는 교회에 들어와 오타발로 마을에서 처음 부름받은 선교사 가운데 한 명이 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선교 사업에서 귀환한 자매와 결혼했으며, 충실하고 복음을 그 중심에 두는 가정을 함께 꾸려 나갔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지도자로 충실하게 봉사했으며 자신의 모국어인 퀴추아어로 몰몬경 및 성전 의식을 번역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귀환 선교사인 후안 아마도는 무노즈 형제가 들려주는 신앙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를 마치자, 이



에과도르 오타발로의 후안 호세 무노즈와 그의 아내 로리와 같은 개척자들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게 복음의 길을 열고, 보여 주고, 살아감으로써 우리 역시 개척자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음을 가르쳐 준다.

착한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북미에서 손수레를 끌고 평원을 건넌던 초기 개척자들에게 감사해 왔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헌신은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제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곳 오타발로에도 개척자가 있음을, 또 그들 가운데 바로 제 부모님이 계신 줄은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되어 정말 기쁩니다.”

무노즈 부부는 개척자가 됨으로써,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있게 복음의 길을 열고, 보여 주고, 그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우리 역시 개척자의 신앙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주님 안에서 신앙을 행사하고 그분 안에서 소망을 품어 영혼의 닦이 되려 한다면 “확실하고 굳건하며, 늘 선행이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이터서 12:4)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레딕 알레드처럼 삶의 여로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돌볼 것이며, 미래 세대를 비롯한 그들은 우리에게서 그런 삶이 주는 힘과 평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대다수는 소지품 몇 가지만 챙겨 마차나 손수레에 싣고 2,090킬로미터를 걸어야 하는 방식으로 신앙과 용기를 증명하도록 요구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날 다른 어려움이, 올라야 할 다른 산이, 건너야 할 다른 강이, ‘백합화 같이 피어나야 하는’(이사야 35:1) 다른 계곡이 있습니다. ...

우리의 힘겨움은 죄와 영적 무관심에 흠뻑 젖어 어느 곳에서나 방종과 부정직,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광야는 혼란과 상충하는 메시지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벨라드 장로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해악을 피하려면 진정한 현대의 개척자로서의 신앙과 용기가 필요합니다.”¹²

우리도 마찬가지로 각자 개척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앞으로 나아가 죄와 혼란, 의심으로 물든 세상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 주기를 기원합니다. 개척자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들이 단합된 노력으로 시온을 건설하고자 왔음을 기억하며,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만나는 모두, 특히 자라나는 세대에게 심어 주어야 하는 책임을 받아들이기를 기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움직이며 그분을 통해 올 선한 것들에 대한 소망으로 닦을 내린 삶을 우리의 “산 제물”(로마서 12:1)로 바침으로써 그렇게 하기를 기원합니다.

개척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함에 지치지 [않음]”(교리와 성약 64: 33)을 의미합니다. 웰사 해치는 분명, 얼음으로 뒤덮인 강에서 침례를 받는 것에서 특별한 의미를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씹는 담배를 바닥에 던졌을 때, 아이잭 내시는 그 순간을 그렇게 중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레딕 알레드도 단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작고 간단한 모든 것에서 뭔가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위대한 노력에는 작은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복음대로 살고, 선지자를 따르며, 의심보다는 신앙을 택하고, 신앙을 키우고 영혼에 닦이 되는 소망을 낳는 작은 일들을 행한다면, 우리는 각자 다른 사람들이 따를 길을 준비하는 개척자가 될 것입니다. ■

2013년 7월 24일, 솔트레이크시티 유타 개척자의 아들들 해돋이 행사에서 전한 말씀 “개척자: 미래의 닻”에서 발췌함.

주
1. Wandering Home: Stories and Memories of the Hatch Family (1988), 3 참조.
2. Wandering Home, 3 참조.
3. Isaac Bartlett Nash, The Life-Story of Isaac B. Nash [nd], 2.

4. Gordon B. Hinckley, “The Faith of the Pioneers,” *Ensign*, July 1984, 5.
5. Lectures on Faith (1985); 히브리서 11:4~40; 야곱서 4:6; 이터서 12:7~22 참조.
6. 또한 Lectures on Faith (1985), 69 참조.

7. 경전 안내서, “신앙”: 엘마서 57:19~ 27; 58:10~13; 물몬서 9:8~ 21; 모로나이서 7:33~37; 교리와 성약 27:17 참조.
8. Andrew D. Olsen, The Price We Paid: The Extraordinary Story of the Willie and

Martin Handcart Pioneers (2006), 470 참조.
9. Olsen, The Price We Paid, 473~474 참조.
10. Olsen, The Price We Paid, 160 참조.
11. Wallace Stegner, The Gathering of Zion: The

Story of the Mormon Trail (1964), 11.
12. 엠 러셀 벨라드, “개척자 신앙과 불굴의 정신, 과거와 현재” *리아호나*, 2013년 7월호, 20~21쪽.

몰몬경

의 출현



조셉 스미스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강력한 도구가 되기 위해 완벽한 삶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매튜 에스 홀런드

이 글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관해 두 부분으로 이뤄진 연재물의 두 번째 기사이다. 첫 번째 기사인 “팔마이라로 가는 길”은 리아호나 2015년 6월호에서 볼 수 있다.

팔 마이라로 가는 조셉 스미스의 여로가 그랬듯이 몰몬경을 세상에 내놓기 위한 그의 노력 역시 시련과 슬픔과 시험으로 점철되었고, 그 과정에서 조셉은 가장 깊은 절망의 골짜기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1823년 9월 21일 밤, 조셉은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어느 교회가 옳은지 알게 해 달라는 간절한 간구가 응답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본, 그 장중한 신의 출현 이후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주 많은 어리석은 잘못에 빠졌고, 젊음의 약점과 인간 본성의 결점을 드러냈[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28)

이러한 단점들을 자각한 17세의 조셉 스미스는 “[자신의] 모든 허물과 어리석음을 사해 주실 것”(조셉 스미스—역사 1:29)을 간구했습니다. 그 응답으로 한 천사가 조셉의 침대 머리맡에 나타났고, 조셉은 “그가 주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했습니다.”라고 전합니다.

자신을 모로나이로 밝힌 그 천사는 조셉에게 “금판에 [쓰인] “영원한 복음의 충만함”이 실려 있는 책이 뉴욕 주 팔마이라에 있는 그의 집 근처 산에 묻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책과 함께 “은테에 물린 돌 두개가 있는데 — 가슴판에 연결된 이 돌들은 우림과 둠뎀이라 불리는 것을 이루며, 이를 “하나님께서 그 책을 번역할 목적으로 ... 마련해 두셨[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34, 35)

그날 밤, 조셉의 가슴에는 놀라움이 점점 더 커져 갔고, 모로나이는 이 소년을 두 차례 더 찾아와서 자신이 앞서 전했던 모든 말을 주의 깊게 반복했습니다. 조셉에 따르면, 매번 그는 주의를 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친가의 궁핍한 형편 때문에) 재물을 얻을 목적으로 그 판을 취하도록 사탄이 나를 유혹하려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나에게 이를 금하면서 내가 그 판을 얻음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목적 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도 있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는 것 외에 다른 어떠한 동기에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조셉 스미스—역사 1:46)

다음 날, 조셉은 전날 밤의 경험 때문에 기력이 소진되어 있었습니다. 조셉은 아버지의 배려로 밭일을 놓고 휴식을 취하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모로나이가

조셉을 네 번째로 찾아왔습니다. 천사는 조셉에게 부친에게 돌아가서 그 시현을 말씀드리라고 명했고, 조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후 그는 근처의 산으로 향했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49~50 참조)

산에 도착한 후 조셉은 판이 담긴 채 묻혀 있는 돌 상자를 지렛대로 열고 안의 물건들을 꺼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마자 조셉은 어떤 강력한 충격으로 뒤로 내던져졌고, 몸에서는 기운이 빠져 나갔습니다. 조셉이 왜 판을 얻을 수 없는지 큰 소리로 외쳐 묻자 모로나이는 “네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²이라고 답했습니다.

천사의 분명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셉은 그 판이면 가족의 재정적인 고민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³ 그 결과, 모로나이는 4년의 시험 기간을 정해 조셉이 이러한 신성한 일에서 요구되는 덕목을, 즉 순수한 목적으로 자신의 부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신을 성숙시키고 준비하게 했습니다.



조셉은 아버지의 배려로 밭일을 놓고 휴식을 취하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모로나이가 조셉을 네 번째로 찾아왔습니다.

번역의 장애물

4년 후, 조셉은 마침내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판을 번역하는 일을 하기에는 거대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신혼이었던 조셉은 어머니와 자신뿐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도움에 크게 의존하는 대가족까지도 부양해야 했습니다. 아마 더욱더 조셉의 마음을 어지럽혔던 것은 판을 노출시키고 빼앗으려 위협을 가하는 지역 사회의 광범위한 반대와 탐욕이었을 것입니다.

팔마이라 폭도가 판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타르를 칠하고 깃털을 붙이겠다고 위협했을 때, 조셉은 그 지역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⁴ 그리하여 1827년 늦게, 판을 콩 자루 속에 넣고, 약간의 소지품만을 챙긴 채 조셉은 친구이자 초기 신자인 마틴 해리스에게서 50달러를 빌려 임신한 아내 어머니를 데리고서 그녀의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까지 남쪽으로 161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그는 이 변화가 일상의 노동을 덜어 주고 팔마이라를 사로잡았던 탐욕과 적대감의 도가니에서 벗어나게 해 줄 것이라 희망했습니다.

그 해 겨울, 조셉이 물문경의 문자들을 일부 번역할 수 있을 만큼 상황이 호전되었습니다. 4월에 마틴 해리스가 하모니로 와서 서기로서 조셉을 돕기 시작했고, 번역 작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조셉이 판을 얻기 위해 처음 지시를 받아 쿠모라 산으로 간 운명의 날로부터 거의 5년이 지난 시점인 6월 중순까지, 그들은 116쪽을 번역해 냈습니다.⁵

이 시점에 마틴은 조셉에게 그 원고를 팔마이라로 가져가서 아내 루시에게 보여 줄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틴의 아내는 남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재산을 들이는지 그 증거를 가져오라 요구하고 있었고, 이는 꽤 납득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이 문제를 여쭙본 조셉은 마틴에게 그 원고를 주지 말라는 답변을 두 차례나 듣게 됩니다.⁶

아내의 의심과 갈수록 날카로워지는 요구를 달래기 위해 그 판이 절실했던 마틴은 조셉을 다시 졸랐습니다. 조셉은 괴로워하며 세 번째로 주님께 갔습니다. 이에 주님은 마틴이 지정된 다섯 사람에게만 원고를 보여 준 뒤에 곧바로 되가져 오겠다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조셉은 마지못해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겠다는 서약을 마틴에게서

마틴은 천천히 걸어오더니 집
울타리에 멈춰 서서 상황을
살피고 모자를 꼭 내려쓰고는
그곳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받고서 원고를 그에게 주었습니다.⁷

이것은 조셉에게 그때까지 일어난 그 어떤 일보다도 그를 겸손하게 만든 연쇄적인 사건들의 서막이었습니다. 마틴이 출발하고 얼마 후, 어머니가 사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어머니와 조셉은 5년 전에 사망한 조셉의 사랑하는 형에 대한 헌정의 의미로 첫 아이의 이름을 앨빈이라 지었습니다. 비참하게도, 공허함을 채우기도 전에 어린 앨빈은 얼마 못 가서 세상에 태어난 그날 바로, 1828년 6월 15일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으로도 충분치 않다는 듯, 어머니는 길고 고된 노동에 기력이 다한데다 아이를 잃은 심적 고통이

준 한 승객(“낮선 사람”)의 꾸준한 도움 덕분에 조셉은 부친의 집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조셉은 마차가 내려 준 곳에서도 32킬로미터를 칠흙같은 어둠을 뚫고서 더 걸어갔습니다.⁹

마침내 집에 도착한 그는 약간의 음식을 섭취한 후 마틴을 불렀습니다. 마틴은 스미스 가족과 아침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으나 정오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마틴은 천천히 걸어오더니 집 울타리에 멈춰 서서 상황을 살피고 모자를 꼭 내려쓰고는 그곳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¹⁰

“모두 잃어버렸어!”

마침내 마틴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그는 포크를 입에 갖다 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술도 뜨지 못하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¹¹

그 소리에, 조셉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틴, 그 원고를 잃어버리신 겁니까? 맹세를 어기신 겁니까? 당신뿐 아니라 제 머리에도 정죄가 내리게 하신 겁니까?”

마틴이 침울하게 답했습니다. “예, 사라졌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¹² (마틴은 그 원고를 5명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보여 주었고, 후에 조셉은 “계약으로” “사람들이 [그 원고를] 탈취해 갔다.”고 밝혔습니다.¹³)

조셉은 통곡하며 소리쳤습니다. “모두 다 잃었어요! 모두 다 잃어버렸다고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제가 죄를 지었어요. 주님을 노엽게 한 건 집니다.” 이에, “흐느낌과 신음 소리, 가장 쓰라린 애통함이 집에 가득했[고]”, 조셉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¹⁴

번역 작업은 한동안 중단되었습니다. 판과 해석기는 10월 22일까지 조셉에게서 거두어졌습니다. 이것은 그의 초기 시험 기간을 상기시키는 가슴 아픈 기억입니다. 그는 또한 주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라, 네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어기며, 사람의 설득에 넘어간 것이 그 몇 번이나.

이는 보라, 네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하였음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며, 그의 말씀을 경멸할지라도-

그래도 너는 충실했어야 하였나니, 그리하였더라면 그가 자기 팔을 펴서, 대적의 모든 불화살을 막도록 너를 떠받쳐 주고



가중되어 거의 죽음에 이를 만큼 위중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2주간 조셉은 아기 앨빈을 잃은 슬픔을 짊어진 채 어머니를 회복시키기 위해 아내에게 신경을 쏟고 간호를 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의 건강이 안정되어 가는 조짐이 보이자, 조셉의 생각은 마틴과 원고로 향했습니다.⁸

조셉의 근심을 알아차린 어머니는 팔마이러로 돌아가 마틴과 원고를 확인해 보라고 격려했습니다. 침울함이 역력한 채로 그는 역마차를 잡아타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여행 중에 조셉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를 가엽게 여기며 걱정해

고난의 때마다 너와 함께 해 주었으리라.”(교리와 성약 3:6~8)

이런 계시를 받을 때 조셉이 처해 있었던 곤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조셉은 막 첫 아들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아내까지도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마틴에게 원고를 주기로 한 그 결정은, 자신이 성스러운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친구를 돕고자 한 절실한 소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셉이 심란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마틴 해리스에게 신세를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전적으로 바라시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바로 언제나 육신의 팔이 아닌 주님의 팔을 신뢰하라는 것



몰몬경 번역 도중에 조셉과 올리버는 설교를 하고, 계시를 받고 기록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말입니다. 조셉이 영원히 칭찬받을 일은, 그가 그렇게 깊고도 철저한 방식으로 이와 같은 교훈을 얻은 뒤에는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았으며 판과 해석기를 다시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성역 이래 세계가 익히 보지 못했던 속도로 종교적인 기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조셉은 이제 올리버 카우드리를 옆에 둔 채, 1829년 봄에 시작하여 많아 봐야 65일의 작업일 동안 놀랍게도 몰몬경 588쪽을 번역해

냈습니다.¹⁵ 이것은 그의 이전 노력에 비하면 정말로 눈부신 속도입니다. 흥정역 성경 번역은 47명의 훈련된 학자가 그들이 이미 아는 언어들로 작업했음에도 7년이 걸렸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¹⁶

게다가 이런 기념비적인 작업 도중에 조셉과 올리버는 설교를 하고, 계시를 받고 기록하고,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 회복에 참여하고, 침례를 받고, 가정을 돌보았으며, 원고를 출판하기 위해 뉴욕 주 페이엠티로 여행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기적은 일이 얼마나 빨리 성취되었는가가 아니라 그 같은 극히 힘든 기간에 작업된 결과물의 복잡한 특성에 있습니다.

놀랍고도 복잡한 책

다음에 나오는, 최근의 한 학술 연구 개요에는 조셉이 65일의 작업일 동안 얼마나 효과적으로 번역 작업을 했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몰몬경에는] 약 이백여 명의 이름을 가진 개인들과 거의 백여 곳의 별개의 장소들을 포함한 수천 년 이상의 역사가 있을 뿐 아니라, 서술 부분 역시 니파이, 몰몬, 모로나이 이렇게 세 명의 주요 편집자 및 역사가들이 집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이 인물들은 그들의 기사가 수십 권의 기존 기록에 기초하고 있음을 표방한다. 그 결과는 직설적인 서술에서부터 삽입된 설교와 서한, 성경에 관한 주석과 시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복잡한 혼합체이다. 연대기, 지형, 계보, 원천 기록의 모든 세부 사항을 작업하는 데에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지만, 몰몬경은 이 모든 것에서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을 보인다. 연대기는 일부 회상과 일시적으로 중복되는 서술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작은 결함도 없이 다루어지며, ... 화자들은 스물여섯 명의 니파이인 기록 보관자와 마흔한 명의 야렛인 왕 사이에서 (경쟁 상대 관계를 포함하여) 순서와 가족 관계 모두 정연함을 유지한다. 그 복잡성이란 이런 것이다. 혹자는 저자가 도표와 지도를 놓고 작업했을 것이라고 가정할지 모르지만, 조셉 스미스의 아내는 ... 조셉이 번역할 때 기억하거나 찾아보았던 무엇인가를 미리 적어 놓지 않았다고 분명히 했고, 그녀는 정말로 조셉이 원고를 살펴보거나 마지막 절을 읽어 달라고 하지 않고도 구술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¹⁷

또한 매우 복잡한 문학적 구조가 나타나 있고 그 책의 번역과

조셉과 올리버는 1829년 봄에
사스케하나 밸리에서 아론 신권
회복에 참여했다.



관련해서 고대의 풍습과 의사소통 형식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을 제쳐 놓고도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¹⁸

이러한 것을 본다면 어떻게 사람이, 그것도 실질적으로 공식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그러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는지 질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조셉 스미스는 물론경을 지어내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가 아무리 강력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이 책의 진실성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적 증거가 아니며, 제 간증의 토대도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논리는 아주 오래 전은 아니지만 제가 전임 선교사일 때 영이 가르쳐 준 것에 확신을 더해 줍니다.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의 신성한 전당에서,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푸른 언덕과 분지에서 저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는 이 후기에 하나님의 도구였으며, 그가 태어나기 오래 전에 존재했던 책, 즉 참되고 비할 데 없이 경건한 행복의 삶을 위한 종적인 이 책을 세상에 나오게 했다는 영적인 증거를 거듭해서 경험했습니다.

저는 또한 조셉 스미스의 생애가 물론경이 전하는 통합적인 메시지에 대한 타는 듯한 간증이라고 단언합니다. 물론경을 시작하면서 니파이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나 니파이는 주의 친절하신 자비가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가 택하신 자 모두의 위에 있[음]을 ... 너희에게 보여 주리라.”(니파이전서 1:20; 강조체 추가) 책을 마치면서 모로나이는 다음과 같이 간구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권면하거니와, ... 너희가 이 기록을 읽게 되거든, 너희는 아담이 창조된 때로부터 너희가 이 기록을 받게 될 때까지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셨던가를 기억하[라].”(모로나이서 10:3; 강조체 추가)¹⁹ 시작부터 끝까지 물론경의 간증과 역사는, 하나님께서,

죄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회개와 신앙으로 그분께 의지하는 자들과 기꺼이 함께 일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축복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조셉 스미스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강력한 도구가 되기 위해 완벽한 삶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와 실패, 혼란은 조셉의 생활과 선교 사업에도 있었으며, 여러분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모두 잃었다”는 생각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자비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두 잃는 일은 없으며,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팔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팔로, 다른 모든 육신의 팔을 합친 것보다 사실상 훨씬 더 강력한 팔로 여러분을 구조하고 여러분의 봉사를 강화시킬 준비가 된, 여러분을 지켜 주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 팔들은 여러분이 큰 외로움과 낙담을 느낄지라도, “고난의 때마다”(교리와 성약 3:8) 여러분을 지탱해 주고 축복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면서 앞으로 나아가갈 때 그 팔들을 신뢰하고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 떨지 [마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여러분]과 함께 가시며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신명기 31:6)입니다.

조셉은 이것을 발견했고,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

2014년 2월 15일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에서 전한 영적 모임 말씀 “The Making of the Book of Mormon, Joseph Smith, and You”에서 발췌함.

주

1. Histories, Volume 1: 1832-1844, vol. 1 of the Histories series of The Joseph Smith Papers, (2012), 14 ; 또한 josephsmithpapers.org 참조.
2. Histories, Vol. 1: 1832-44, 83.
3. Oliver Cowdery, “A Remarkable Vision,” The Latter-day Saints Millennial Star 7 (Nov. 1840): 175 참조.
4. Martin Harris, Tiffany’s Monthly, June 1859, 170 참조.
5. Histories, Vol. 1: 1832-44, 244 참조;
- 또한 Gospel Topics, “Book of Mormon Translation,” lds.org/topics 참조.
6. Histories, Vol. 1: 1832-44, 245 참조.
7. Histories, Vol. 1: 1832-44, 245-46 참조.
8. Lucy Mack Smith, Biographical Sketches of Joseph Smith the Prophet, and His Progenitors for Many Generations (1853), 118 참조.
9. Lucy Mack Smith, Biographical Sketches, 119-20 참조.
10. Lucy Mack Smith, Biographical Sketches, 120 참조.
11. Lucy Mack Smith, Biographical Sketches, 121.
12. Lucy Mack Smith, Biographical Sketches, 121.
13. Histories, Vol. 1: 1832-44, 83.
14. Lucy Mack Smith, Biographical Sketches, 121-22.
15. John W. Welch, “How Long Did It Take Joseph Smith to Translate the Book of Mormon?” *Ensign*, Jan. 1988, 47 참조.
16. “King James I of England,” kingjamesbibleonline.org/King-James.php 참조.
17. Grant Hardy, Understanding the Book of Mormon: A Reader’s Guide (2010), 6-7.
18. Terryl L. Givens, By the Hand of Mormon: The American Scripture that Launched a New World Religion (2002), 156 참조.
19. Grant Hardy, Understanding the Book of Mormon, 8 참조.



의로움의 보상을 거둬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문자 그대로 동요하고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45:26 참조) 우리의 난제 중 다수는 영적인 영역의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인 사안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의로움이 쇠퇴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의로움의 보상”이라는 이 발상은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없어질 위기에 처한 개념입니다.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선택하도록 확신을 주는 일은 아주 오래 지속되어 온 난제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며”(모사이야서 3:19)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니파이후서 2:11)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 차이라고 한다면 “크고 넓은 건물”(니파이전서 8:31)의 회의론자들은 제가 살아온 그 어느 시절보다도 더 큰 소리를 내고, 더 다툼을 일으키고, 덜 관대하다는 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안과 관련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눈 밖에 나는 것보다 역사의 눈 밖에 나는 것을 더 걱정한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줄었다는 증거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당대의 주된 견해나 지배적인 철학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심판 받을 것임을 이해한 때가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받는 것을 더 걱정합니다.

선과 악의 싸움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모두가 지켜야 할 도덕적인 의로운 표준은 없다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더 충실한 회원들을 가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슷한 도덕적 가치관을 지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회 회원들은 의심과 불신앙의 바다에 있는 신앙의 섬을 상징합니다. 선지자 엘마가 선언했듯이, 우리는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었[음]”(엘마서 41:10)을, 그리고 당신 자녀들을 위한 아버지의 계획은 “행복의 계획”(엘마서 42:8, 16)임을 압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함께 의로움의 보상을 더 잘 이해하고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강한
영적 다짐에서
멀어지도록 영향을
주는 세상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될 수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보상

“영적 발전을 이루려 노력하면서도 어떻게 동시에 물질적인 걱정

에 대한 적절한 관점을 견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 세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상 생활의 물질적인 측면은 구체적인 어려움입니다. 사회는 세상적인 보상의 렌즈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서문에서는 위험을 경고하고, 지금과 미래에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고 보호하는 지침을 주며,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그 문제를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그들은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길로, 또 자기 자신의 신의 형상을 따라 걷나니, 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이요, 그 실체는 우상의 것이니.”(교리와 성약 1:16 참조)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은 우상에는 자격증, 학위, 재산, 집, 가구 및 기타 물질적 대상이 포함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김볼 회장은 주님에 대한 예배를 소홀히 하지않고, 주님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사업을 행하기 위한 노력을 약화 시키지 않는다면 충분히 합당한 목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목표들을 우선시 한다면 우리는 우상을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¹

세상은 현세적인
일상의 경제
문제들에
집중되어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일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지나다 보면 우리는 엄청난 부를 갈망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를 강한 영적 다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몇 가지 독특한 장면을 보여 주는 흥미로운 전시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힌 큰 현수막 아래 서로 다른 장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밤에 오신다면, 누구에게 오실까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 간호사의 시중을 받는 나이 많은 병든 여성.
- 갓난아이와 함께 있는 기뻐하는 젊은 어머니.
- 배고픔에 우는 자녀들이 있는 가족.
- 부유한 가족.
- 많은 자녀들이 함께 기쁘게 노래하는 단란하지만 검소한 가족.

구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날이나 시간을 알지 못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있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너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면, 더 정확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밤에 오신다면,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 두 번째 생각은, 그 장면들에는 그 사람들의 물질적 상태는 오롯이 드러나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구주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헌신을 재검토하기 위한 출발점은 침례입니다. 새로운 개종자와 아주 어린 사람들을 제외하고, 우리는 오래전에 침례를 받았습시다.

위대한 선지자 엘마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유려하게 말합니다. “또 이제 보라,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였고, 만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집중하고 영적인 것들에 더욱더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너희가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자 느꼈다면, 내가 묻고자 하노니, 너희는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느냐?” (엘마서 5:26)

엘마는 그런 후 우리의 시대와 관련이 있는 심오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만일 그들이 죽게 된다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엘마는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자질을 강조합니다.

첫째, “[우리는] 충분히 겸손했[는가]?” 어떤 면에서 이것은 우리가 겸손해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침례 요건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교만을 벗어 버렸[는가]?” 엘마는 거룩하신 자를 우리의 발 아래 짓밟고 교만 중에 부풀어 올라,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헛된 것에 두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셋째, 우리는 “시기심을 벗어 버렸[는가]?” 큰 축복을 가졌지만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시기심은 가장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생활방식에 대한 시기심”은 명성과 부가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핵심적인 열망으로서 신앙과 가족을 대신할 때 증가합니다.

넷째,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업신여기거나 핍박하는가? 오늘날의 세상에서 보자면, 그것은 약자를 향한 괴롭힘을 뜻합니다.(엘마서 5:27~30, 53~54 참조)

겸손, 교만, 시기심, 핍박에 관한 이 메시지보다 우리 시대의 문제들과 더 관련 있는 것이 또 있을까요? 세상의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대한 논쟁은 현세적인 일상의 경제 문제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와 우리의 영적 상태에 중점을 둔 그리스도적인 원리들로 돌아가는 것에 관한 토론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집중하고 영적인 것들에 더욱더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의로운 가족이라는 보상

“교회 회원들이 얼마 없고 많은 악과 다툼, 의로움에 대한 반대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우리의 가정을 꾸려 가도 괜찮겠습니까?”

아내 메리와 저 역시 1960년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을 때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후기 성도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훌륭했지만, 그 지역은 약물 사용과 온갖 종류의 문란하고 죄가 되는 행동을 끌어들이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변화는 이를 우려한 한 스테이크 회장님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과연 교회 회원들이 그 지역에 남아 있도록 격려하는 게 맞느냐며 물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선임 사도였던 해롤드 비 리(1899~1973) 장로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명받으셨습니다. 리 장로님은 주님께서 우리 지역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영감을 주신 것은 회원들이 떠나가게 하려 함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리 장로님이 주신 다음 권고는 간단하지만 심오했습니다.

1. 마음과 가정에 시온을 건설하라.
2.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빛이 되라.
3. 성전 의식과 그곳에서 가르치는 원리들에 집중하라.

우리는 리 장로님의 권고를 소중히 간직하고 가정 안에서 그 권고를 따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가정에 시온을 건설하려면, 매일 가족과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매주 가정의 밤을 함으로써 가정 안에서 종교 생활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에 발맞추어, 우리는 자녀를 가르치고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친절로 행하고, 자녀들과 배우자에 대한 불필요한 비판을 삼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사는 곳이 어디이든, 그리고 모든 것을 의롭게 행했다 하더라도, 일부 자녀들은 금지된 길로 이어지는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자녀가 부적절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하도록 제안을 받을 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야 할지 미리 결심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자녀들은 후기 성도 어린이가 두세 명밖에 없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각 학년을 시작할 때와 학교 활동을 하기 전에, 우리는 자녀들이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방법을 가정의 밤 시간에 토론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바보 같이 굴지마, 다들 그렇게 한단 말이야.”, “네 부모님은 모르실 거야.”, “단 한 번뿐이야. 문제될 거 없어.”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지는 책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옷을 정숙하게 입음으로써, 깨끗하고 합당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 이제는 초등학교 연령대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하는 덕목인, 외설물을 피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부적절한 유혹을 받았을 때 도망친 애굽의 요셉을 이야기했습니다.(창세기 39:7~12 참조) 제 자녀들은 각자 그러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그런 경험을 적어도 한 번씩은 했지만, 대부분은 친구들이 제 자녀들의 표준과 믿음을 알았기에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제 딸 캐스린이 전화를 걸어오면 제 아내 매리는 캐스린이 구주에 대해 사랑했던 것들을 이야기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라는
단단한 토대가 있다면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 살더라도 자녀가
의롭게 되도록 양육할
수 있습니다.



주었습니다. 매리는 캐스린이 전화로 상담해 온 문제에 도움을 줄 때마다 주님의 모범과 성품을 활용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라는 단단한 토대가 있다면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 살더라도 자녀가 의롭게 되도록 양육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니파이는 그의 가족과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또 우리는 우리의 예언에 따라 기록하노니,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니파이후서 25:26)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자녀들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할 때에도 자신이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니라는 것과, 또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가족의 각 구성원을 강화하고자 노력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축복받게 된다는 확신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빛이 되라는 리장로님의 권고를 따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들인지 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가치와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적절한 경우 우리는 공개적인 정치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성전 의식을 받고, 우리가 맺은 성약에 참되면 우리는 성약의 길에 머물기 위해 집중하고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수행하기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그들의 삶에 질서가 잡힐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뻐하며, 전도하고, 예언하여 의로운 가족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누리고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을 강화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독신이지만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교리는 다음과 같이 다시 한 번 확신을 줍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생에서 영원한 결혼과 부모가 되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충실한 회원이 하나님과 맺은

이 세상에서
행복에 이르는
필수 요소는
사랑입니다.



성약을 지키면 약속된 모든 축복을 영원의 세계에서 받게 될 것이다.”³

행복이라는 보상

“자녀가 인생에서 행복과 성공을 누리도록 어떠한 혜택을 제공해 주어야 할까요?”

루시퍼는 의에 반대되며,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할 날조된 행복 또는 그런 행복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 냈습니다. 오늘날 우리 문제의 대부분은 세속적인 세상이 행복에 대한 부정확한 정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문제가 모든 세대에 걸쳐 존재한다는 것을 물론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계명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오는 축복을 압니다.

베나민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복되고 행복한 상태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자 하노니, 이는 보라, 그들은 현세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일에 복됨이요, 만일 그들이 끝까지 충실히 견디면 하늘에 영접되나니, 그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결코 끝이 없는 행복한 상태에 거하게 되리라. 오 기억하라, 이러한 것들이 참됨을 기억하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이를 말씀하셨음이니라.”(모사이야서 2:41)

오랫동안 저는 1930년대에 시작된 어떤 연구 작업에 주목했습니다. 처음에 그 연구는 온 생애 동안 정기적으로 공부한 일류 대학 출신 남성 268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여성도 연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연구는 약 70년간 진행되었습니다. 그 연구의 원래 목적은 성공과 행복과

관련된 것을 가능한 많이 찾아내는 데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대학 입학 점수와 평점 평균으로는 만년의 성공 또는 행복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높은 상관 관계가 있는 한 가지 분야는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누렸던 행복이었습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성인들은 보통 어머니가 사랑과 애정을, 특히 말로 표현하고, 엄격한 훈육은 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부모는 서로 다정함을 드러내 표시했고 자녀가 필요로 할 때에는 함께 있어 주었고, 자녀와 따스하고 정서적 표현을 잘하는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부모들은 안정된 가정 환경을 만들었으며,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해 준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2012년에 출간된 이 연구에 대한 결론을 담은 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어린 시절이 초기의 재정 및 사회적 성공보다도 인생 전반에 걸친 성공의 많은 척도를 더 신뢰성 있게 예측한다.” 따뜻한 어린 시절은 더 높은 지능, 사회적 지위, 또는 운동성과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또한 “어린 시절에 잘한 일이 잘못된 일보다 미래를 훨씬 더 잘 예측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는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상당한 난관에 부딪히고 어떤 경우에는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질 때조차도 회복력을 갖고 있으며, 부모님, 특히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사랑하는 관계로 구축된 신뢰는 영속적인 평생의 행복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제게 흥미롭기는 하지만 놀랍지는 않았던 것은 이 연구가 경전과 교회에서 가족에 관해 가르치는 것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가정의 밤, 가족 기도, 사랑의 표현, 가족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가족의 전통을 강조하는데, 그 연구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야말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성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바로 그런 종류의 활동들입니다.

니파이는 “홀륭하신 부모”(니파이전서 1:1)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서 물몬경을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주는 진짜 교훈은 우리 후손이 그들도 홀륭하신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행복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어떤 부모가 될지를 우리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이 보살피는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확실히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행복의 필수 요소는 사랑입니다.

땅에서 번성하는 보상

“우리 가족은 커다란 물질적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까?”

경전은 계명에 따라 생활할 때 땅에서 번성하게 되리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하지만 땅에서 번성하는 것이 은행 계좌의 잔고에 따라 정의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선지자 엘마는 아들 힐라맨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줍니다.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진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임을 … 또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진대 그의 면전에서 끊어질 것임을 네가 또한 알아야 할 것임이니라.”(엘마서 36:30)

따라서 우리 인생에서 영을 지니는 것은 땅에서 번성하기 위한 주요 요소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도 특정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에베소서 6:1~3 참조) 예를 들어 교리와 성약 89편에는 지혜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에서 진정한 번성은 가족을 부양하는 것과 구주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찾아옵니다.



의로움의 궁극적인 보상은
“이 세상에서는 평화,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입니다.

살면 건강의 축복과 큰 지식의 보화를 누리리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의 한 요소를 분리시키는 것, 즉 알코올을
피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앞서 제가
언급한 장기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코올 남용은 미국
가정의 3분의 1에 영향을 미치고, 종합병원 입원 수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사망, 이혼, 건강 악화, 성취도 감소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활동적인 교회 회원들에 대한
장기간의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여타 미국인들보다 여성은
평균 5.6년, 남성은 9.8년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연구를
진행한 의사들은 적어도 한 가지 요인은 지혜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에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지혜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면 우리는 땅에서 번성할 수 있습니다.⁵

저는 성전 헌납식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고든 비
헝클리(1910~2008) 회장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회장님은 후기 성도들이 땅에서 번성하기 때문에 교회는
성전을 더 지을 수 있는 기금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기쁘게
말씀하셨습니다. 충실한 십일조 납부자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재원을 제공했습니다.

번성과 부유함이 반드시 동의어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땅에서 번성함에 대한 훨씬 더 훌륭한 복음의 정의에 따르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영의 충만한 축복을 지니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소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구주를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는 영을 지니고 땅에서 번성하는
보상을 누릴 것입니다.

평화라는 보상

궁극적으로 약속된 의로움의 보상은 다음과 같이 교리와
성약 59편 23절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배우라.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으리니, 곧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으리라.”

35년도 더 전에 김볼 회장님은 “훌륭한 여성들이 ...
교회로 대량으로 인도됨으로써” 교회가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이
일은 교회의 여성들이 생활에서 의로움과 분명한 생활 태도를
나타내 보이고 ... 행복의 방법에서 세상의 여성들과 구별되고
다르게 보이는 정도에 따라 일어날 것입니다.”⁶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으며,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참으로 해와 방패이십니다. 그분은 은혜와
영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시편 84:11 참조) 여러분이
주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면서 의로움의
보상을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

2014년 5월 2일, BYU 여성 대회에서 전한 말씀인 “The Rewards of
Righteousness”에서 발췌함.

주

- 스펜서 더블유 김볼, “우리가 섬기는 우상”, *성도의 빛*, 1977년 8월호, 1~4쪽 참조.
- Lane Anderson, *Deseret News*, “The Instagram Effect: How the Psychology of Envy Drives Consumerism,” Apr. 15, 2014, C7 참조.
- 교회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2010), 1.3.3. 보이드 케이 패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은 2014년 4월 연차 대회 말씀, “증인”,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94~97쪽에서
이것을 재확인했다.
- George E. Vaillant, *Triumphs of Experience: The Men of the Harvard Grant Study*
(2012), 108~9.
- James E. Enstrom and Lester Breslow, “Lifestyle and Reduced Mortality among
Active California Mormons, 1980~2004,” *Preventive Medicine* 46 (2008), 135 참조.
- 스펜서 더블유 김볼, “의로운 여성의 역할”, *성도의 빛*, 1980년 3월호, 149~152쪽 참조;
또한 *Teachings of Presidents of the Church: Spencer W. Kimball* (2006), 223 참조.



종교와 정부는 목적지는 같으나
가는 길은 다릅니다. 그 둘은
서로 보호하고 북돋아 줄 때 가장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종교와 정부

종교와 정부는 함께 살기가 힘들 때도 있지만, 떨어져서는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부부와 같은 관계입니다. 종교와 정부는 성장을 위해 독립해야 하지만, 둘 사이가 완전히 갈라지면 어느 한쪽도 무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줍니다. 둘은 목적지는 같으나 가는 길은 다릅니다. 그 둘은 서로 보호하고 북돋아 줄 때 가장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유지하며, 사회에서 교회가 기능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날 세상의 정부는 대부분 종교의 자유를 적어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며, 예배할 권리와, 자기 양심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종교를 실천할 권리를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그래 온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국교를 강요할 때 자유가 억압받는 결과를 여러 세대가 목격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정부가 종교를 전적으로 금하는 데 따르는 도덕의 몰락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국법이 비록 정부의 행태와는 동떨어져 있더라도 박해로부터 종교적 믿음과 관례의 준행을 보호하고 지켜 주는 사회를 지향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¹

물론경에 묘사된 하늘의 영감을 받은 정부는 백성에게 종교적 믿음과 이를 실천할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였으면, 이는 저의 특권이라. 곧 그보다는 저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를 섬기는 것은 저의 특권이었으나, 저가 그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저를 처벌할 법은 없었느니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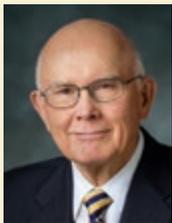
이는 사람들이 그들의 범죄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법이 있었음이라. 그러할지라도 사람의 믿음을 금하는 아무런 법이 없었으니”(앨마서 30:9, 11)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대로 종교적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의 보호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종교의 필수적인 역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종교적 믿음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도록 보호해 주는 정부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종교와 도덕이 훌륭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유지하고 조장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덜 분명해 보일지 모르나, 오늘날 세상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심각한 문제의 유일하고 진정한 해결책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종 차별이나 폭력, 또는 중오에서 불거지는 범죄는 영적인 문제이며, 그에 대한 유일하고 진정한 해결책 역시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도덕적 진보 중 많은 부분은 종교적 원리에서 촉발되었으며, 연단 위의 설교는 사람들을 설득시켜 공식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종교적 믿음의 필수적인 영향력

“우리 사회를 기본적으로 결속시키는 것은 법과 그 집행이 아니라, 의롭거나 올바른 행동에 대해 자신의 내면에 정해진 표준 때문에 강요할 수 없는 것을 자진해서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종교적 믿음은 다수의 시민이 그와 같이 자발적으로 준행하게 하는 데 필수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가 2013년 5월 16일, 뉴욕 시에서 베크트 종교자유재단이 주최한 켄터베리 훈장 만찬장에서 전한 “Strengthening the Free Exercise of Religion(종교의 자유로운 실천 강화)”이라는 제목의 연설은 mormonnewsroom.org에서 볼 수 있다.

그 예로는 영국에서의 노예 매매 제도의 철폐 및 [미국에서의] 노예 해방령이 포함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시민권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²

사회는 도덕적 질서를 세우는 데 상당 부분을 종교와 교회에 의존합니다. 정부는 도덕성과 인성 및 신앙이 결핍된 사회가 낳은 범죄자들을 수용할 교도소를 절대로 충분히 세울 수 없습니다. 이런 성품들은 법령이나 경찰력보다는 종교를 통해서 더 잘 함양됩니다. 정부가 인간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태도와 욕구 및 소망을 통제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태도와 욕구 및 소망은 정부가 규제해야 하는 행위로 자라나게 되는 씨앗입니다.

프랑스의 역사가이자 정치인인 알렉시 드 토크빌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신앙 없는 폭정은 가능할지 모르나 신앙 없는 자유는 불가능하다.”³ 그리고 폭정마저도 신앙 없이 무한정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까닭은 러시아 연방의 초대 대통령 보리스 옐친이 말한 바와 같습니다. “충검으로 권좌를 만들 수 있을지언정 그 권좌에 앉기란 실로 어렵다.”⁴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책에 기록된 율법과 마음에 기록된 율법을 대조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태복음 5:21, 28)

정부는 법전에 기록된 법을 집행하지만, 종교는 마음에 기록된 법을 준수할 것을 가르치고 권고합니다. 후자를 지키는 사람은 교리와 성약에 나오듯이 좀처럼 전자를 위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 땅의 법을 어길 필요가 없음이니라.”(교리와 성약 58:21)

그런데 영적인 문제를 도외시할 때, 제정된 법의 원칙과 체계 역시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회에서의 공손함은 법이나 경찰력으로 가하는 강요가 아니라 대다수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는 도덕적인 일을 할 때 성취됩니다.

정부는 시민의 행동을 감독합니다. 온당하고 도덕적인 면으로 행동하게 하려고 힘씁니다. 반면에 종교는 사람들이 온당하고 도덕적인 면으로 행동하려는 열망을 심어 주고자



우리는 쟁점 사항과 후보를 신중하게
살펴보고, 성실하게 임무에 임할
것으로 생각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격려받는다.

정부의 대표자들은 자기 양심의 지시에 따라 자유로이
믿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훌륭한 종교는 어떤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종교를
믿는 사람은 자유롭게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하도록
독려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교회는 종교 단체로서 정치적 중립을 거듭 확인해 왔으며,
후기 성도는 정치 과정에 관여하고 공개 토론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독려받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일부입니다.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원은 각자 정부 법률에 따라 유권자 등록을 하고, 쟁점
사항과 후보를 신중하게 살펴보고, 성실성과 건전한 판단력으로
임무에 임할 것으로 생각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격려받는다. 후기 성도들은 정직하고, 선하며, 현명한 지도자를
찾아 투표하고 그들을 지지해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교리와
성약 98:10 참조)”⁷

언젠가 구주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왕 중의 왕이자
우리의 위대하신 대제사로서 지배하고 통치하는 일은 그분의
권리입니다. 그때 정부의 통치권과 신권 권능은 하나로 통합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날이 올 때까지 종교와 정부는 각기 다른 쪽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기본적인 기여를 인정하며 손에 손을 잡고
인간의 역사가 나아갈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

주

1. W. Cole Durham Jr., Silvio Ferrari, Cristiana Cianitto, Donlu Thayer, eds., *Law, Religion, Constitution: Freedom of Religion, Equal Treatment, and the Law* (2013), 3-5 참조.
2. Dallin H. Oaks, “Strengthening the Free Exercise of Religion,” address given at The Becket Fund for Religious Liberty Canterbury Medal Dinner, New York City, May 16, 2013, 1; mormonnewsroom.org에서 볼 수 있음.
3. Alexis de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 2 vols. (1835-40), 1:306.
4. Boris Yeltsin, Donald Murray, *A Democracy of Despots* (1995), 8.
5. 에즈라 테프트 벤슨, “하나님께로 태어남,” *성도의 빛*, 1986년 1월호, 6쪽.
6. Edmund Burke, *A Letter from Mr. Burke, to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in Answer to Some Objections to His Book on French Affairs*, 2nd ed. (1791), 69.
7.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2010), 21.1.29.

힘씁니다. 미국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각료의 일원이었던
에즈라 테프트 벤슨(1899~1994) 회장님은 이런 중요한 차이점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안에서 밖으로 역사하시지만, 세상은 밖에서 안으로
일합니다. 세상은 빈민가에서 사람들을 빠져나오게 하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마음에서 빈민가를 없애서서
그들이 스스로 빈민가를 빠져 나오게 하십니다. 세상은 인간의
환경을 변화시켜 인간의 틀을 잡으려 하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변화시켜 인간이 자신의 환경을 바꾸게 하십니다.
세상은 인간의 품행을 형성시키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⁵

때가 되면 모든 자유로운 정부는 결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선언과 지원에 의지해야 합니다. 저명한 정치가이자 정치
철학자인 에드먼드 버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절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그들의 걱정은 자신의 족쇄를 만들 뿐이다.”⁶

그런 목적으로 훌륭한 정부는 종교를 보호하고 종교의
자유를 조장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종교는 올바른 시민 의식과
나라의 법률을 준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훌륭한 정부는 편을 들지 않아도 됩니다. 특정한 종교를
육성하거나 다른 종교보다 특정 종교를 선호해서는 안 됩니다.

난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거야

대학 1학년 때 나는 과 친구들에게
실망감을 자주 느꼈다. 친구들
대다수가 시험을 볼 때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교실에 공책을 몰래 숨겨 갖고
들어 오는 학생들도 있었고 시험 답안을
문자로 찍어 다른 학생에게 보내는
친구들도 있었다. 몇몇은 아예 다른
친구의 답안지를 그대로 베끼기까지 했다.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들은 언제나
나보다 좋은 학점을 받았다. 그런데도
나는 그들처럼 해야겠다는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 정직한 0퍼센트가 훗친
100퍼센트보다 낫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겼다.

부정행위를 한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할 것이다. 또,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과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며 교회가 참됨을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된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미납한 수업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대학 서무과로
갔다. 다음 주에 기말고사를 보려면
수업료를 모두 지급해야만 했다. 나는
걸어가면서 필요한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걱정했다. 나처럼 자력으로 학비를
대는 대학생은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다.

서무과에 도착하여 직원에게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졸업 때까지
학비를 낼 필요가 없어요.”

나는 깜짝 놀라 정말이냐고, 장난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대답은 이랬다. “그럼요, 확실해요.
장난이 아니에요. 상원 의원의
장학금을 학생이 받도록 지도

교수님이 신청하셨어요. 학생은 이제
장학생이에요.”

그 말에 날아갈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나온 후,
지도 교수실로 달려가 교수님께도 감사를
표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말씀드리자 교수님은 이렇게 답하셨다.
“내게 감사할 필요 없어요. 나는 연결만
해 준 거니까.”

지도 교수실을 나설 때, 내가
사람들에게 자주 나누었던 경건
구절이 떠올랐다. “또 마지막 날에
나의 이름에 충실한 자로 밝혀진 그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들리워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그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임이니라.
볼지어다 이를 말한 자는 나 [예수
그리스도]이니라.”(이디서 4:19)

나는 부정직이 일반화된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충실함을 나타내 보였다. 나는
신앙 안에 굳건히 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안다.

나는 이제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어 행복하다. 또 계속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과 축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내게 분을 보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옳은
일을 계속해야겠다는 용기가 생긴다. ■
조안나 매 랑가, 필리핀 남부 레이트

부정 행위를 하는 친구들은 언제나
나보다 좋은 학점을 받았다.
그런데도 나는 그들처럼 해야겠다는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





나는 내 결혼식 날에 어머니의 웨딩 드레스를 꼭 입고 싶었다.

어머니의 웨딩드레스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웨딩드레스를 처음 본 일이 기억난다. 어머니는 상자에 고이 넣어 둔 드레스를 꺼내 살며시 펼쳐 보여 주셨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나는 내 결혼식 날에 그 드레스를 꼭 입고 싶었다.

어머니는 그 드레스를 조심스럽게 다시 넣으시며 나중에 빌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드레스는 아버지의 특별한 선물이었다고 한다. 결혼 사진 속의 어머니는 깊은 사랑에 빠진 아름다운 숙녀였다. 부모님은 교회 회원은 아니지만 훌륭한 분들이셨다.

내가 우리 교회를 알게 된 건 남편을 통해서였다. 우리의 만남은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교회의 활동 회원은 아니었지만, 나와 대화를 나누면서 첫번째 시현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는 참 놀라웠다. 그렇다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은 아니었다.

16개월간 교제한 끝에, 나는 길게 늘어지는 어머니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약혼자에게로 걸어갈 것이라는 내 꿈을

이루게 되었다. 나는 깊은 사랑에 빠졌다. 사람들은 내 모습이 어머니가 결혼할 당시의 모습과 꼭 닮았다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두 아들을 얻었다. 남편이 교회로 돌아가려 했을 때, 나는 그를 막았다. 어릴 적에 다니던 교회를 꾸준히 나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다른 교회를 받아들여기가 힘들었다.

나는 결혼하고 19년이 지나서야 마음을 바꾸었다. 남편이 교회로 돌아가자 몇 주 후에 나도 남편과 함께 참석하기 시작했다. 내 간증은 급속도로 커졌고 나는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 곧이어 성전에서 남편에게 인봉되기 위해 나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 되었다.

마침내 행복한 인봉의 날이 왔을 때 나는 어머니의 흰 드레스를 다시 입었다. 한 교회 친구가 성전에서 입을 수 있도록 드레스를 손봐 주었다. 나는 그 후로 성전에 갈 때마다 줄곧 그 드레스를 입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곧 아버지를 따라 가실 날이 다가왔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회복된 교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으신 상태였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에게 회복과 관련된 좋은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다. 또, 어머니가 휘장을 건너가실 때 참된 복음을 듣게 되실 거라는 점도 말씀드리면서, 1년 후에 어머니를 대신해 내가 우리(어머니와 나)의 드레스를 입고 성전 의식을 받음으로써,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인봉되도록 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했다.

내 드레스는 이제 낡아서 언젠가는 입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남편을 위해,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 또 내가 성전에서 대리로 의식을 해 드렸던 조상들을 위해, 참된 복음을 위해, 성스러운 성약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계속해서 그 드레스를 입을 것이다. ■

안젤리카 플로레스 알가바, 멕시코 케레타로

주께서 내게 평강을 말씀하시다

나는 며칠째 시름시름 앓는 내 딸 칼리가 감기에 걸린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상태가 악화되자 더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었다.

그리고 의사를 만난 후, 내 걱정은 확신으로 변했고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 버렸다. 칼리는 소아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딸은 당뇨병성 혼수상태에 빠졌고,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야 했다. 나는 마음의 평안을 구하고 의사들의 조치가 효험이 있기를 바라며 기도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딸을 구하기 위해 신속히 움직였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위안과 평안을 간구했다.

조용한 시간을 틈타 남편과 시아버지가 칼리에게 신권 축복을 했다. 남편은 축복 중에 딸이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며 딸을 안심시켰다. 나는 평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의사들이 몇 시간이나 칼리를 주사

바늘로 들쑤시고, 검사하고, 살피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그만 지쳐 버렸다. 병실의 소란스러움은 새벽 한 시가 되어서야 잤아들었다. 나는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외롭기만 했다.

나는 언니가 병원으로 가져다준 물몬경을 읽으며 나에게 필요한 확신을 경전에서 찾고자 간구했다. 엘마서 36장 3절이 펼쳐졌다. 이 구절을 읽는데, 마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내가 알거니와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시련과 그 곤경과 그 고난 중에 받들어 주심을 얻을 것이요, 마지막 날에 들리움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날 밤에 두 번째로 평안이 찾아왔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내가 그분이 그곳에 함께하신다는 것과 그분을 믿는 신앙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알길 바라셨다.

나는 그날의 일들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셨는지를 생각했다. 나는 칼리를 의사에게 데려가야 한다는 긴급함을 느꼈다. 우리는 병원에 무사히 도착했다. 신권 소유자가 신속히 도착하여 축복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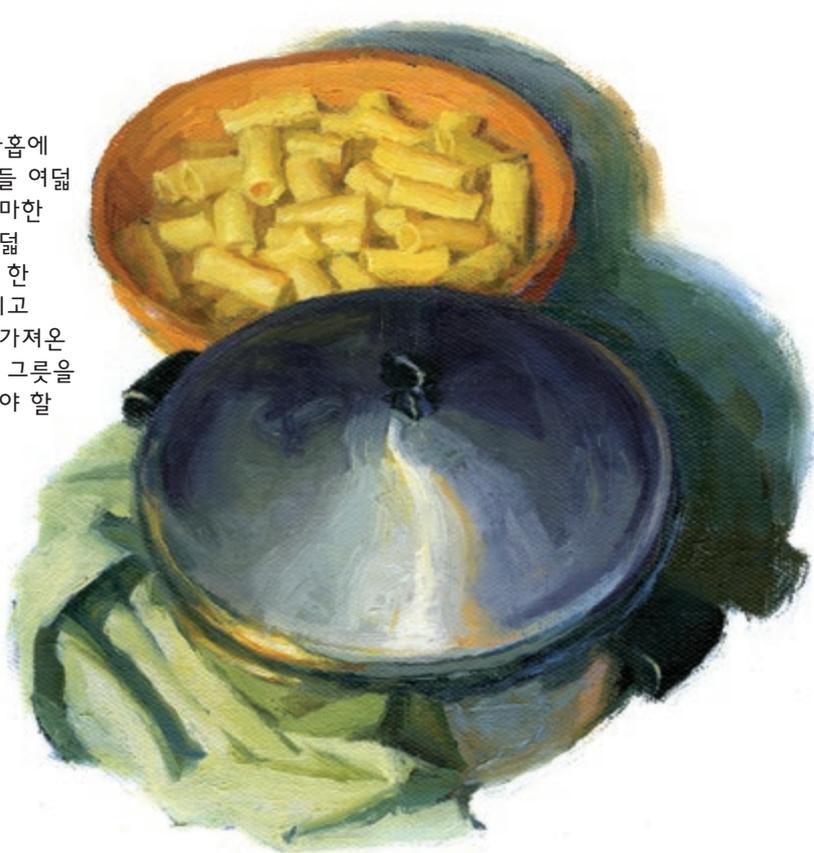
우리는 그날 이후로 일상적으로 혈당을 확인하고 손 닿는 곳에 간식거리를 준비해 두었다. 우리는 당뇨 관리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배웠다. 칼리의 병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시련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병원에서 보낸 그날은 기억에서 떨쳐 버리고 싶은 날이 아니라 영원토록 감사해야 할 날이자 배움을 얻고, 신앙을 행사하고, 감사함을 느낀 날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를 일일이 알고 계시며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실제로 도와주신다는 것을 배웠다. ■
트리샤 톰킨슨 리스, 미국 애리조나

○ 급실에
○ 도착하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칼리를 구하기 위해
신속히 움직였다.



어른 아홉에
아이들 여덟
명이 자그마한
닭튀김 여덟
조각과 밥 한
접시, 그리고
여동생이 가져온
파스타 한 그릇을
나눠 먹어야 할
판이었다.



작은 닭튀김 여덟 조각으로

남편이 일시적으로 실직하자 성장기의 다섯 아이를 키우는 우리 가족은 생활이 빠듯해졌다. 2014년 10월 연차 대회 방송 전날, 우리는 찬장을 살펴보고서 대회 중간의 휴식 시간에 먹을 점심으로 간단히 닭튀김과 밥을 준비하기로 했다.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일요일을 맞을 수 있었다. 부모님과 자매들의 가족들로 이뤄진 우리 집안 식구들은 방송 시작 30분 전에 스테이크 센터에서 만났다.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이 특별히 우리 세대를 위해 전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이었는지. 그분들이 주시는 권고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는 놀라운 화평과 사랑의 영을 느끼며 나는 모든 것이 잘되고, 가족의 영적, 현세적 필요가

해결되며, 계속 신앙을 행사하고 매사를 주님께 맡긴다면 가난과 다른 역경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그런데 안식일의 아름다운 영에 심취해 있다가 나는 그만 식사 문제를 잊고 말았다. 그리고 점심 시간이 되어서야 우리 가족이 총 17명이나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른 아홉에 아이들 여덟 명이 자그마한 닭튀김 여덟 조각과 밥 한 접시, 그리고 여동생이 가져온 파스타 한 그릇을 나눠 먹어야 할 판이었다.

여덟 살인 헨리가 음식에 대한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드리며,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 그런 다음 나는 닭을 잘게 쪼개 아이들에게 나눠 주었고 동생은 파스타와 밥을 아이들 그릇에 털어 주었다. 조금씩 나눠

주긴 했지만, 음식은 모두의 접시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충분했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음식을 먹고 우리는 모두 포만감을 느꼈다.

나는 부모님과 남편에게 구주께서 참으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나누어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마태복음 14:14~21 참조)의 무리를 먹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일부 비평가와 불신자들은 그 기적이 은유나 과장일 뿐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가족과 나는 그 기적이 기록된 그대로 진실임을 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앙심이 깊은 한 어린이가 감사를 드리며 음식을 취하는 가족이 모두 배불리 먹고 영양분을 얻도록 축복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주셨다.

연차 대회를 위해 복도로 돌아오며 내 마음은 기쁨으로 넘쳤다. 마치 예수께서 먹이신 그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있는 듯 느껴졌다. 그들은 귀 기울여 듣는다면 결코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분께 배우고자 머무르기를 간절히 원했다.(요한복음 6:35 참조)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조용히 예배당에 자리를 잡고 앉아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을 받은 종들에게 귀 기울일 준비를 했다. 우리 가족은 언제나 그 일을 기억할 것이다. ■
아버가일 알메리아, 필리핀 세부

생기와 활기로 채우라



랜덜 에이 라이트

친 구가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려 찾아왔다고 잠시 상상해 보자. 단 한 가지 조언만 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겠는가?

매리온 지 롬니(1897~1988) 장로님은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았을 때, 자신이 이 중요한 부름을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친구였던 십이사도 정원회의 해롤드 비 리(1899~1973) 장로님에게 조언을 구했다. 롬니 장로님은 그날 받은 조언이 놀랍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자극을 받기도 했다. 리 장로님은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총관리 역원으로 성공하려면, 영감을 받아야 하네. 계시를 받아야 하겠지. 내가 조언을 하나 해 줘세.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게. 그러면 몸과 마음에 휴식을 얻어 하루의 다른 어떤 때보다도 이른 아침의 고요한 시간에 번뜩이는 영감과 통찰을 더 많이 받게 될 걸세.”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롬니 회장님은 그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권고를 실행에 옮겼고, 그 효과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어떤 창의적인 성격의 임무를 받아 영의 영향력을 받고자 할 때마다 저는 늘 하루의 다른 어느 시간대보다도 이른 아침 시간에 더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이 기사를 처음 읽었을 때, 나는 리 장로님의 조언에 깜짝 놀랐다. 한 번도 매일의 이른 시간을 계시와 연결시켜 본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두 가지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또한 기도나 경전 공부, 금식, 성전 참석, 봉사 등과 같이 전통적으로 계시 받는 것과 관련된 행동들도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어날 때 더 크게 강화된다는 점을 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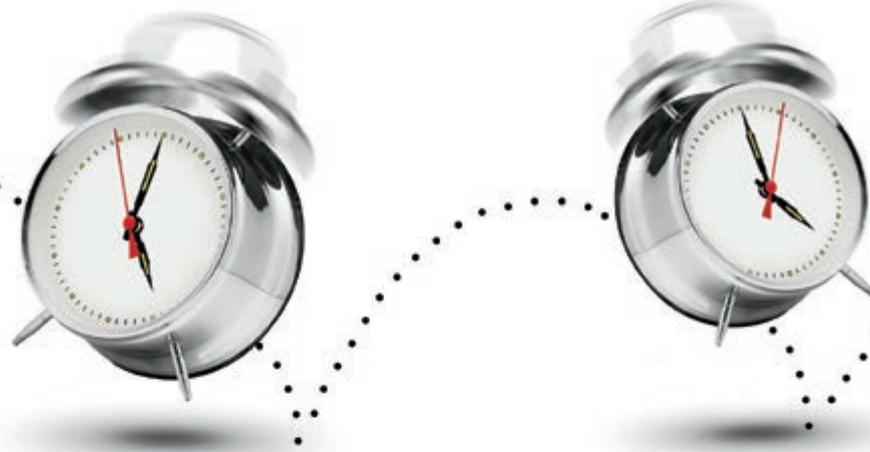
**우리가 꾸준하게
자제하며 따른다면
더 건강하고 생기
넘치고 영감을 받는 데
도움이 될 한 가지
습관은 무엇일까?**



경전상의 예

시대를 막론하고 영감을 받는 사람들은 수면과 관련하여 이 신성한 권고를 따랐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창세기 19:27; 강조체 추가)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출애굽기 34:4; 강조체 추가)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여호수아 6:12; 강조체 추가)

주님께서서는 지상 성역 동안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을까?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마가복음



1:35) 헌신적인 제자였던 마리아는 주님의 모범을 따라 그렇게 했고 우리는 그런 그녀의 행위에서 이런 강력한 교훈을 배운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요한복음 20:1) 이른 아침에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본 필멸의 사람이 되었다.

일찍 일어날 때 오는 축복

우리 시대의 훌륭한 지도자들도 이른 아침 시간을 활용해 계시를 받는다. 언젠가 나는 스테이크 대회에서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한 분이 자신은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다. 모임 후에 나는 그분과 일찍 일어나는 습관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눈 다음,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에 계신 분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이 그런 습관을 갖고 계신지 여쭙어 보았다. 그분은 “모두 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셨다. 그 순간 큰 깨달음이 찾아왔다. 영은 내게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참으로 계시를 받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간증해 주었다.

수면에 관한 주님의 권고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다. 이 놀라운 약속을 생각해 보자.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잠자기를 그치라. 일찍 네 잠자리에 들어 피곤하지 않게 하고, 일찍 일어나 너희 몸과 너희 마음이 활력 있게 하라.”(교리와 성약 88:124; 강조체 추가) 활력 있다는 말은 “생기와 원기로 채워지는 것”을 뜻한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른 아침을 활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유익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동트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 좋은데, 그런 습관은 건강과 부, 지혜를 얻는 데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² 일찍이 미국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 역시 그런 생각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는데, 이 말은 나중에 유명한 격언이 되었다.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면 건강과 부와 지혜가 찾아온다.”³ 건강과 부, 지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들이 아닌가.

건강

미국 최고경영자들의 평균 연령은 55세이다.⁴ 한 국제적인 조직의 최고경영자가 97세라는 것은 과연 믿을 수 있는 일인가? 그가 그런 노령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연설하고, 지도자를 훈련하고, 정부 관리를 만나고, 주요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떠한가? 그 아래서 일하는 두 보좌가 79세와 87세라면?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이 교회 회장 재임 말년의 상황이 바로 이리했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이 장수하는 유일한 원인은 아니겠지만, 주요 원인 중 하나일 가능성은 높다.

브리검 영 대학교 총장이었던 어네스트 엘 월킨슨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건강에 여러 모로 유익하다고 언급했다. 그 당시 교회 회장이던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회장님을 거론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맥케이 회장님이 그런 노령까지 훌륭하고 원숙하고 왕성하게 생활하실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확신하는 것은 그분이 젊었을 때부터 일찍 잠자리에 들고 대개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 마음이 깨끗하고 몸이 활력으로 넘칠 때 하루 일을 하는 습관을 들였다는 점입니다.”⁵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것과 정신적 및 정서적 건강 사이에는 어떤 상관 관계가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좌절감과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른 아침 시간에 도움을 구하십시오.”⁶

지혜

수면 형태와 지혜의 상관 관계는 단지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연구자들이 실시한 연구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 주었다. “습관적으로 잠자리에 늦게 들고 다음 날 늦게까지 자는 학생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는 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학점이 더 낮았다.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는 학생일수록 학점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조사한 모든 요인 중에서 주중 및 주말 기상 시간이 학생들의 평균 학점과 가장 깊은 연관성을 보였다. 학생들이 주중에 평균보다 한 시간을 더 잘수록 평균 학점이 0.13점이 떨어지는 연관성을 보였다.”⁷

얼마 전에 나는 203명의 후기 성도 대학생들에게 수면 형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 학생들은 등교일에는 평균 오전 7시 30분에, 또 주말에는 오전 9시 15분에 기상했다. 잠자리에 드는 평균 시간은 등교일에는 자정, 주말에는 오전 1시였다. 이 학생들은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이른 일정과 지식 습득 간의 연관성에 관한 조사 결과에 정반대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아마도 더 높은 평균 학점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 습관의 결과라는 발견이 너무 간단해서 믿기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방법이 간단하였으므로 인하여” (니파이전서 17:41; 또한 힐라맨서 8:14~15 참조) 뱀에 물린 상처에 대한 주님의 치료법을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자손처럼 되고 있지는 않은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님이 지혜를 얻는 것과 관련해 주신 다음 권고를 생각해 보자. “저는 자녀들에게 밤에 피곤하고 고갈된 심신과 싸워 가며 공부하기보다는 이른 아침에 활기 있고 기민할 때 중요한 공부를 하라고 권고합니다.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라’는 금언의 힘을 배웠습니다.”⁸ 아마도 이것이 전임 선교사들이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는 일정을 따르는 한 가지 이유일 것이다.

다른 축복들

칠십인 정원회의 명예 회원인 조 제이 크리스티슨 장로님은 아내 바바라 자매와 함께 쓴 글에서, 수면에 관한 주님의 권고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오는 더 많은 축복들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라는 권고에는 탁월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교리와 성약 88:124 참조] ... 세상은 이른 아침에 더 아름답다. 삶은 더할 나위 없이 고요하다. 더

짧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⁹ 크리스티슨 장로님은 브리검 영 대학교 노년의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여러분 중에는 필요한 만큼 휴식을 취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늦게 잠자리에 들고 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자는 것이 습관이 되어 받을 수 있었던 일부 개인적인 영감을 놓치는 사람도 있습니다.”¹⁰

헝클리 회장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약속을 더해 주셨다. “열 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여섯 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일들이 잘 풀려 나갈 것입니다.”¹¹

수면에 관한 주님의 권고를 따르는 것이 작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주께서[는] 작은 수단으로 큰 일을 이루실 수”(니파이전서 16:29) 있다. 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면 계시를 포함해 많은 축복을 생활에 불러올 수 있다는 간증이 있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났을 때 하루에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성취하게 되는지를 보는 것은 정말 놀랍다. 이런 자기 수양의 유익은 이를 위해 들인 노력을 훨씬 능가한다. 잠자리에 누워 있고 싶은 첫째 싸움에서 이긴다면, 그날 동안 더 많은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 또한 우리가 생기와 활기로 채워질 가능성도 한층 더 많아진다. ■

글쓴이는 미국 애리조나에 산다.

- 주
1. Joe J. Christensen, *To Grow in Spirit: A Ten-Point Plan for Becoming More Spiritual* (1989), 27-28 참조.
 2. Aristotle, *Wit and Wisdom of Socrates, Plato, Aristotle*, ed. N. B. Sen (1967), 100.
 3. *Selections from the Writings of Benjamin Franklin*, ed. U. Waldo Cutler (1905), 16.
 4. *Forbes magazine*, “Emerging Culture, Worldwide Success,” Oct. 25, 2012 참조.
 5. Ernest L. Wilkinson, *Lifting One's Sights*, Brigham Young University Speeches of the Year (Oct. 1, 1963), 4.
 6.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89쪽.
 7.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49 (2000): 125-30.
 8. Boyd K. Packer, *Teach Ye Diligently* (1975), 205.
 9. Joe J. and Barbara K. Christensen, *Making Your Home a Missionary Training Center* (1985), 33.
 10. Joe J. Christensen, “Resolutions” (Brigham Young University fireside, Jan. 9, 1994), 5, speeches.byu.edu.
 11. Gordon B. Hinckley, Sheri L. Dew, *Go Forward with Faith: The Biography of Gordon B. Hinckley* (1996), 166-67.

헝가리의 굳센 기둥

맥켈 조지

헝가리의 독신 성인 크리스티안 에스테르*는 복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더불어 낙관적이고 충만한 생에 대한 믿음을 강화해 준다고 말한다. “헝가리인은 밝은 미래 대신에 어두운 과거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에스테르가 언급한 과거란 헝가리의 역사 중 특정 기간(1949~1956) 동안 헝가리의 국가 *Isten, áldd meg a magyart* 조차 부를 수 없었던 기간을 말하는 데, 그 제목의 의미는 “하나님, 헝가리인을 축복하소서”이다.

헝가리에 복음이 들어오며

헝가리 정부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가 부다페스트가 내려다보이는 겔레르트 산 정상에서 헌납 기도를 올리고 1년이 지난 후인 1988년에 교회를 정식으로 승인했다. 1990년에는 40년 동안이나 종교의 자유가 없던 이 나라의 부다페스트에 선교부가 개설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영향력은 특히 후기 성도 청년 성인들의 가슴속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종교 교육원 지원 센터

지원 센터는 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 청년 성인을 돕는 데 큰 몫을 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는 중부 유럽을 방문하기 전날, 강력한 계시에 잠을 깬다. 그는 이 지역에서는 교회의 힘이 청년 성인들 사이에 있으리라는 느낌을 받았다. 지원 센터는 청년 성인들이 수업과 활동에 참여하고, 믿음이 같은 친구를 찾을 수 있는 열린 장소이다. 에스테르는 말한다.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표준이 위협받을 걱정 없이 즐겁게 지낼 수 있어요.”

에스테르는 고향 우페헤르토에서 선교사들을 알게 되었고, 그녀는 매주 무료 영어 회화반에 참석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선교사들은 그녀를 지부 활동에 초대했다. “저는 처음부터 모든 활동의 밤, 가정의 밤, 무도회에 참석했죠. 저는 18세가 되기 3주 전쯤에 침례를 받았어요. 이제 저는 제가 하나님의 딸이며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딸을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요.”

**헝가리는 전쟁과
압제로 피폐해졌지만,
교회의 청년 독신
성인들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청년 성인 활동

에스테르는 여전히 니레지하저에 있는 지부의 청년 성인 활동에 참석한다. 헝가리에는 아직 청년 성인 와드나 지부가 없다. 에스테르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여전히 함께 모이고 있어요. 함께 꽃 축제와 개구리 축제에 가고, 동물원에도 갔죠.”

페리 장로가 예견했듯이, 헝가리의 청년 성인 회원들은 모든 이에게 빛의 원천이 되고 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 헝가리에서는 이름 앞에 성을 쓴다.



에스테르에 대해 더 알아보시다

헝가리에서 데이트는 어떻게 하나요?

청년 성인 회원들끼리 서로 만나는 활동을 계획하기는 하지만, 국토의 양 끝에 떨어져 사는 사람들도 있어서 쉽지는 않아요.

성전에는 얼마나 자주 가나요?

저는 1년에 한 번 독일 프라이베르크 성전을 방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운이 좋은 회원 속에 속하죠.

헝가리에서 교육은 중요한가요?

네, 사실 저는 그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제 부모님은 수료증이 몇 개나 있으신데도 집안 형편은 그리 좋지 못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장점을 알게 되어 2014년 1월부터 대학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숫자로 본 헝가리

인구 9,877,365명(2014년 현재)
 국토 면적 93,030제곱킬로미터
 헝가리에는 온천으로 이루어진 450개의 공중 목욕탕이 있다.
 헝가리어에는 14개의 모음이 있다.

헝가리의 교회

후기 성도 5,050명
 와드 및 지부 22곳
 스테이크 1곳(2006년에 조직됨.)
 가족 역사 센터 6곳
 선교부 1곳(부다페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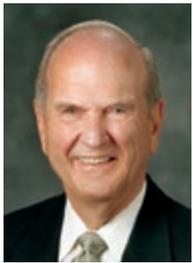
헝가리 소개

수도: 부다페스트
 언어: 헝가리어(마자르어)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

평안은 평강의 왕을 진심으로 찾는 모든 이들에게 올 수 있습니다.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구주와 영원한 삶에 초점을 맞추면
필멸의 삶에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를
헤쳐 나가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다른 불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이 지구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타락하여 과도한 부채와 전쟁, 자연재해, 질병,
사망이 만연합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떤 문제로
걱정하든 간에 우리는 각자 내면의 평안을
염원합니다.

저는 영속적이고도 참된 평안의 유일한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 평강의 왕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¹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²

**그분은 전쟁으로 삶이 파괴된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져다주실 수 있습니다.** 병역 의무로 어려움을
겪은 가족들에게는 전쟁의 기억이 남아 있을
텐데, 제 마음에도 한국 전쟁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현 시대의 전쟁은 더 복잡하지만, 여전히
가족들에게는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을 겪는
분들은 주님께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이 지상에는 평화를, 사람들에게는
선한 뜻을 전해 줍니다.³

몸이 좋지 않은 이들에게도 평안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부상을 입은 분들도 있고 사랑하는
이를 잃었거나 다른 정서적 외상으로 영적인
고통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평강의 왕을 믿는 신앙을 키울 때 평안이
여러분의 영혼에 깃들 수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너희에게 저는 자나, 맹인이나,
다리 불편한 자나, 장애인이나, ... 어떻게든지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고쳐 주리라.”⁴

“이는 너희의 신앙이 내가 너희를 고치기에
족한 줄 내가 압이니라.”⁵

**평안은 슬픔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슬픔의 원인이 실수이든
죄이든 간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뿐입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라].”⁶ 그러면 죄로 고통을 겪는
영혼일지라도 그분의 감미로운 “길르앗[의]
유향”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⁷

1725년에 런던에서 태어난 존 뉴턴에게

있었던 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노예 무역상이라는, 죄로 가득 찬 삶을 청산하고 영국 성공회의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큰 변화를 겪은 존은 찬송가 “놀라우신 은총(Amazing Grace)”의 가사를 지었습니다.

놀라우신 은총이여! 그 따뜻하고 감미로운 음성이여
그 은총은 나 같은 비참한 자를 구하셨네.
한때 길 잃었으나 이제 길 찾았네.
한때 눈멀었으나 이제 보게 되었네.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 기뻐하리라”⁹
일이 고된 이들에게도 평안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음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¹⁰

애통하는 자들에게도 평안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¹¹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견디어 낼 때라도 우리는 영의 속삭임을 통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 하리니. 이는 죽음이 그들에게 달 것임이니라.”¹²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¹³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¹⁴

평안은 평강의 왕을 진심으로 찾는 모든 이들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분의 감미로운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의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분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선교사들은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다음 말씀을 가르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¹⁵

평안은 주님의 길을 걷기로 한 모든 이에게 올 수 있습니다.
사랑이 담긴 이 세 단어에는 그분의 권유가 담겨 있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¹⁶

우리는 평강의 왕을 찬송할 것입니다.¹⁷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입니다.]”¹⁸ 복천년의 메시아인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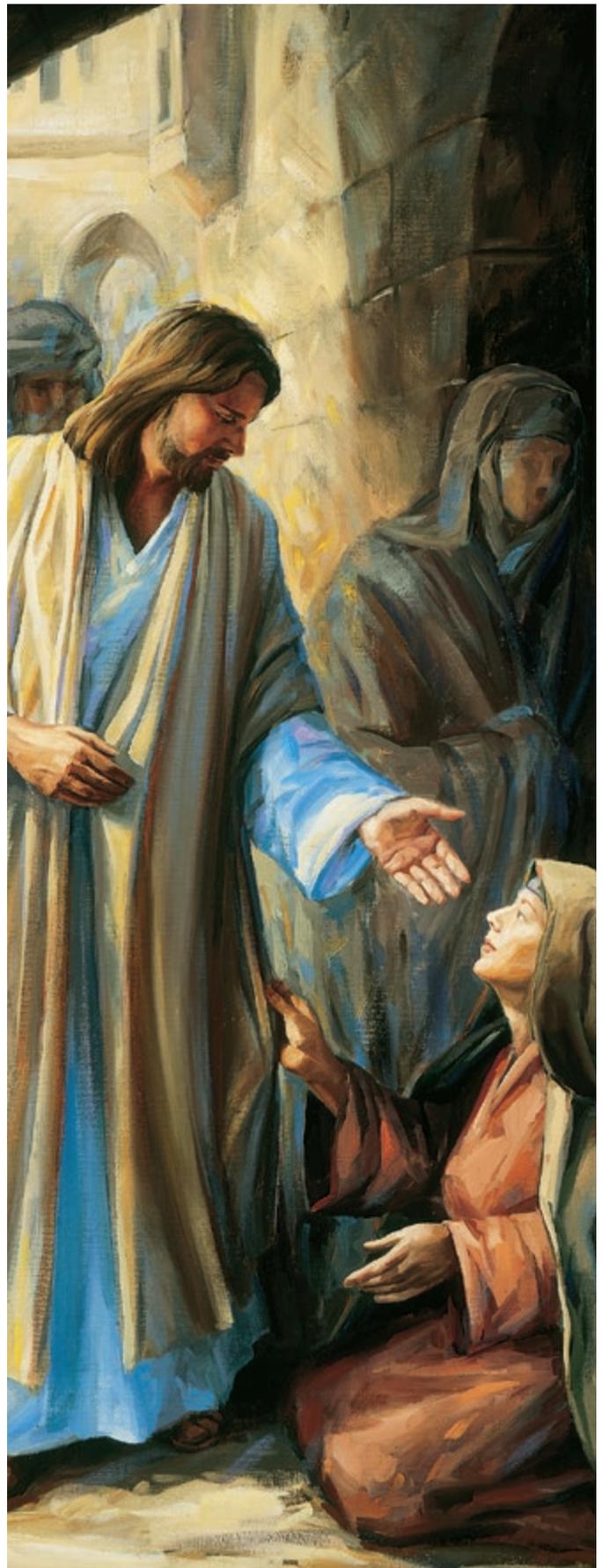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필멸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맺은 성약에 충실하고 끝까지 견딘다면,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을 얻을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²⁰ 그분의 거룩한 면전에서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이 영원토록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

2013년 성탄절 영적 모임에서

주

1. 이사야 9:6; 니파이후서 19:6 참조.
2. 마태복음 19:14.
3. 누가복음 2:14 참조.
4. 제3니파이 17:7.
5. 제3니파이 17:8; 또한 마태복음 13:15; 제3니파이 18:32; 교리와 성약 112:13 참조.
6. 디모데후서 2:22; 또한 제3니파이 9:13 참조.
7. 예레미야 8:22 참조; 또한 “오늘 네 집 떠나올 때” 참조. *Hymns*, no. 140; “There Is a Balm in Gilead,” *Recreational Songs* (1949), 130.
8. “Amazing Grace,” *Olney Hymns* (1779), no. 41; 또한 요한복음 9:25 참조.
9. 누가복음 15:7; 또한 10절 참조.
10. 마태복음 11:28~30.
11. 마태복음 5:4; 또한 제3니파이 12:4; 교리와 성약 101:14 참조.
12. 교리와 성약 42:46.
13. 요한복음 14:27.
14. 요한복음 11:25~26.
15. 요한복음 14:15.
16. 누가복음 18:22.
17. “예수의 이름 찬송하고”, *찬송가*, 120장 참조.
18. 이사야 40:5.
19. 요한계시록 19:16 참조.
20. 교리와 성약 14:7 참조.



구주의 옷에 손을 대는 어떤 세례, 주디그 에이 메트 작

해답을 찾아서



14세 교사 신권 형제로서 저는 가정 복음 교육에 실제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습니까?

경 전에 따르면, 가정 복음 교육의 목적은 “각 회원의 집을 방문하여 소리 내어서 그리고 은밀하게 기도할 것과 모든 가족의 의무를 다하도록 그들을 권면[하는]”(교리와 성약 20:51) 것이다. 가정 복음 교사는 가르치도록 지명받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하며, 그들의 힘을 북돋아 [준다].”(교리와 성약 20:53) 그들은 “경고하고, 해설하며, 권면하며, 가르치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해야 [한다].”(교리와 성약 20:59)

이제 스스로에게 “내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라. 답은 이것이다. 여러분은 할 수 있다! 동반자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그는 여러분이 약속을 잡고, 간증을 전하고, 공과를 전하고, 또 그 외에도 많은 것을 하도록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이 방문하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해내도록, 또 앞으로 평생에 걸쳐 수행하게 될 기타 신권 의무를 해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

나에게 고통을 안겨 준 사람을 왜 용서해야 하는가?

우 리 대다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들을 용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교리와 성약

64:9~11 참조) 처음에는 이 말씀이 잘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조금 더 그분처럼 되고 더 큰 기쁨을 찾도록 도와주시고자 하신다. 우리의 짐을 그분께 벗어 놓고 분노와 쓰라림, 아픔을 내려놓는다면, 이

세상에서는 평안을, 또 영원한 세상에서는 큰 축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눈물과 금식, 기도, 신권 지도자 상담, 성전 방문 등을 해야 하겠지만, 이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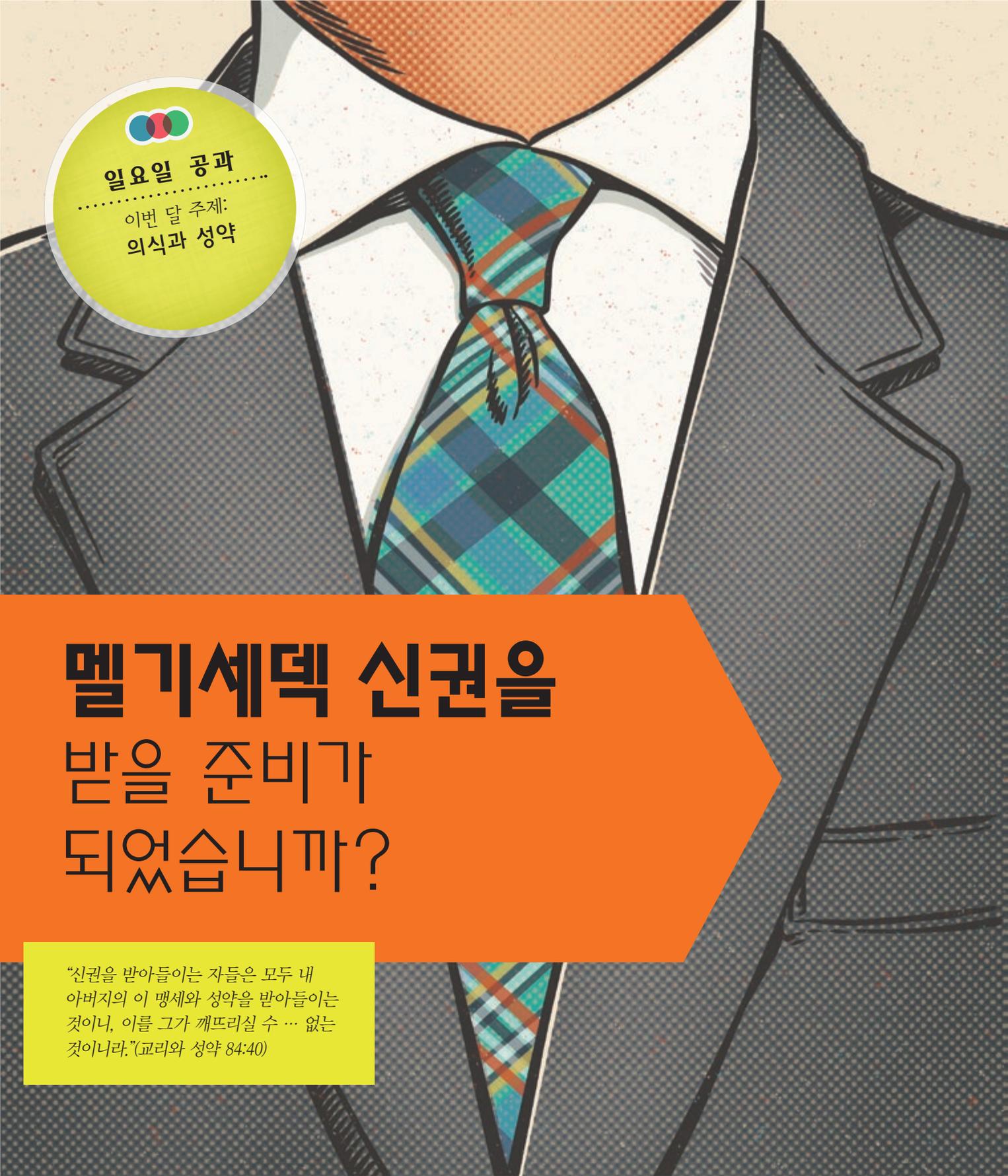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하지만 우리는 불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필멸의 삶을 사는 목적 중 일부는

그러한 것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늘은 이런 특징이 있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용서받고, 용서합니다.”(“공허히 여기는 자가 공허히 여김을 받습니다”,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77쪽) ■

타인을 용서하는 것과 관련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고든 비 헝클리, “용서”,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81~84쪽; 제임스 이 파우스트, “용서가 낳는 치유의 힘”,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67~69쪽 참조.




일요일 공과

이런 달 주제:
의식과 성약

멜기세덱 신권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모두 내 아버지의 이 맹세와 성약을 받아들이는 것이니, 이를 그가 깨뜨리실 수 ... 없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84:40)

아론 신권은 맹세 없이 받는 반면에 멜기세덱 신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맹세하시고 여러분과 성약을 맺으심으로써 받게 된다. 다음 아이디어는 주님께서 신권의 맹세와 성약을 계시해 주신 교리와 성약 84편 33~44절에 나오는 핵심 어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맹세를 하셨는가?

“맹세와 성약이 이루어지기에 합당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멜기세덱 신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신권을 받아 성약들을 지키고, 성전 의식에서 이를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는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맹세로 인해 그분의 영광의 충만함을 얻고 그분처럼 살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신앙과 신권에 속한 맹세와 성약”,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61쪽.

성약에서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성약에서 인간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은 신권 부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교리와 성약 84:33 참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고, 계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이다.”

President Joseph Fielding Smith (1876-1972), “Magnifying Our Callings in the Priesthood,” Conference Report, Apr. 1970, 59.

여러분의 몸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저는 저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성취된 그러한 약속을 보았습니다. 저의 한 친구는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그가 봉사하는 동안, 매일 하루를 마치면서, 자신이 과연 또 다른 하루를 견딜 힘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2층의 침실로 가는 계단을 겨우 오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그는 힘과 용기가 회복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회복된 복음에 대해 간증하기 위해 일어설 때마다 새로워진 것처럼 보이는 연세 많은 선지자들의 삶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지닌 신권의 봉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분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신앙과 신권에 속한 맹세와 성약”,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62쪽.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합당하게 신권을 받는 형제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분이 소유하신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의로운 남성과 여성, 어린이들이 이 맹세와 성약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러셀 엠 벨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약”,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88쪽.

성구 사슬: 주님을 받아들임

신권을 받는 것은 주님을 받아들이는 한 가지 방법이다. 그 외에 다른 두 가지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 구절을 읽어 보자. 요한복음 13장 20절 및 교리와 성약 112:20.



청녀들도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신권의 축복은 남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런 축복은 또한 우리의 아내와 딸, 그리고 교회의 모든 충실한 여성들에게 부여져 내립니다. 이 선한 자매들은 주님의 집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 계명을 지키고 교회에서 봉사함으로써 스스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아들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영적 은사와 축복을 그분의 딸들에게도 주십니다.”

President Joseph Fielding Smith (1876-1972), “Magnifying Our Callings in the Priesthood,” Conference Report, Apr. 1970, 59.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받음: 현대의 비유



한 젊은이가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선교부 규칙을 지키고 열심히 일한다면 선교사 비용을 대 주겠다고 했으며, 그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선교 지역에 가 보니 선교 사업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생소한 문화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반대에 부딪히자 그는 낙담했습니다. 동반자와 선교부 회장이 용기를 불어넣어 주려 했지만, 여전히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선교부 회장님에게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선교부 회장은 젊은이의 부친에게 전화했고, 아들을 방문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낙담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엄마와 나는 네가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게 될 날을 고대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선교 사업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줄 미처 몰랐어요.”
“그건 나의 전부란다.”

아버지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 생애 동안 나는 한 사람만을 생각하면서 일하고 저축해 왔단다. 그게 바로 너야. 그리고 나의 목표는 네게 훌륭한 유산을 남겨 주는 것이었지.”

아들은 말을 가로채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렇더라도 이 일이 재미없다는 사실을 바꾸진 못해요 …”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주님께 봉사함으로써 너 자신을 증명해 보이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너를 믿고 내 사업을 맡길 수 있을까?”

아버지의 질문에 아들은 생각에 잠겼고, 대화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만일 이 부름을 충실히 이행하여 네가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네게 주마.”

이런 약속에 감동을 받은 아들은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여기 있을게요.”

아들은 선교 지역에 그대로 남아 충실하게 봉사했습니다. 선교부 규칙을 따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때가 되자 아버지로부터 약속받은 상속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말입니다.

칠십인 정원회의 카를로스 이 에시(1926~1999) 장로가 전한 “신권의 맹세와 성약”, 성도의 빛, 1986년 1월호, 51쪽에서

신권을 통해 내가 받는 축복

하나님의 딸로서 의롭게 생활할 때 나는 그분의 신권을 통해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신권을 통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권 권능으로 축복된 성찬을 취함으로써 성약을 새롭게 하고 더 온전하게 회개할 수 있다. 나는 신권 축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개인적인 지시를 받는다. 나는 신권 열쇠를 지닌 사람의 지시에 따라 성별되고 부름을 수행할 권세를 받을 수 있다. 나는 그 권세를 사용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할 수 있다. 나는 성전에서 신권 권능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더 많은 성약을 맺을 수 있다. 나는 합당한 신권 소유자와 성전에서 결혼할 수 있으며, 의로움 안에서 함께 가족을 이뤄 갈 수 있다. 나는 나의 영원한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교리와 성약 84:38 참조)

멜리사 하트, 미국 유타



대화에 참여하세요

일요일에 깊이 생각할 것들

- 성약을 지키는 것은 어째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받기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는가?
- 신권을 “얻는 것”(교리와 성약 84:33)과 신권을 “받아들이는 것”(35절 참조)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 교리와 성약 98편 11~12절에 있는 가르침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 모든 말씀으로 살[아 가는 데]”(교리와 성약 84:44) 어떤 도움이 되는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 성신과 함께하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노력한다. 영감을 받는다면 신권의 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 교리와 성약 84편 33~44절에 나오는 신권의 맹세와 성약을 외운다.
- 엘마서 13장과 교리와 성약 13편, 20편, 107편, 121편과 같이 신권과 관련된 보충 성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한다.



켄트 에프 리차즈
장로
칠십인 및 교회
성전부 집행 책임자

주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웃음을 지으십시오.
성전은 권능과 축복의 장소입니다.

어느 성전 일반 공개에서 저는 부모님의 뒤를 따라 성전을 둘러보는 소녀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소녀들은 신부 대기실 거울에 비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소녀들의 할머니가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 소녀들은 각각 자신이 어여쁘고 명석하게 성장하여, 지상에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할 준비가 된 신앙 있는 여성으로서 성전에 다시 올 때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성전 일반 공개에 참석한 소년들도 미래의 축복과 책임을 어렵듯하게나마 그려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성전에서 느낀 것들은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성전에 와서 성스러운 의식을 받으며, 또한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하고 대비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곳입니다. 특히 여러분은 젊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청년은 연륜이 쌓여 흔들림이 없는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도 더 성전에서 그의 자리가 필요하며, 막 인생에 눈을 뜬 숙녀에게도 성전 의식에 참여하여 오는 영과 영향력 및 인도가 필요합니다.”¹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이런 축복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시작하십시오.(마태복음 13:23; 마가복음 4:20 참조)

충만한 복음을 받아들임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함으로써 여러분은 성전에서 “[주님] 복음의 충만함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교리와 성약 35:12; 강조체 추가) 성전은 권능과 축복의 장소입니다.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초기 성도들에게 미국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 모이라고 지시하셨는데, 그들은 마침내 그곳에 성전을 세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너희는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받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38:32; 강조체 추가)

최근에 어느 성전 일반 공개에서 한 사도님은 가족을 인봉실의 거룩한 제단

주위에 모이게 한 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곧 공과, 활동, 프로그램 및 모임은 성전 제단에 와서 인봉 의식을 받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준다는 점을 가르치셨습니다. 성전은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과 진보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무엇이 가장 핵심이 되는지를 보여 주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성약을 맺을 준비를 함

성전에 가서 성약을 맺기 위한 준비는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으며 확인을 받는 것에서 시작해서, 기도와 경전 공부, 순종, 봉사를 통해 진척됩니다. 또한 매주 성찬에 참여하여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 용서를 구하는 법을 배우고, 표준을 지키며, 제한 사용 성전 추천서를 합당하게 지님으로써 우리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준비는 개인적인 일이며 여러분의 합당성, 여러분의 간증, 여러분의 개심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구주의 속죄는 여러분에게



요점

- 우리는 성전에서 구원에 필수적인 의식을 받는다.
- 우리는 용서받지 못한 범법이 없이 깨끗하고 순결한 상태로 성전에 가야 한다.
- 성전에서 받는 여러 가르침과 의식은 경전에서처럼 상징적이어서 성전에 갈 때마다 조금씩 더 이해가 깊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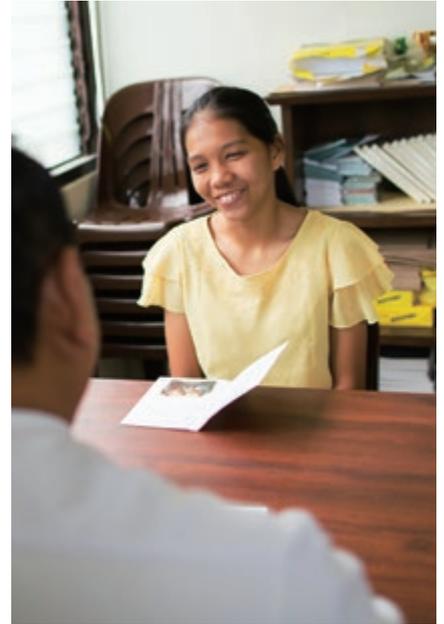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자신의 영적 성숙도를 높이면, 성전에 들어가고 싶다는, 또한 성전에 갈 준비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길 것입니다. 성전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는 데 필요한 단계로서 의식을 받고 성약을 맺습니다. 성전 의식은 “인간에게 계시된 가장 높은 ... 의식”²입니다.

성전 의식을 받음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단 한 번의 엄숙한 성약을 맺게 되며, 그런 다음에는 평생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의식을 제공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느끼고 더 많은 계시와 이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영원한 존재라는 것과, 여러분이 맺은 성약의 끝없는 힘을 깨닫고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면 성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가서 성약을 맺는 까닭은 여러분은 영원토록 존재하며, 또한 가족과 더불어 “끝이 없는 행복”(모사이야서 2:41)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자라며, 성신이 이를 확인해 줍니다.

합당해지십시오

성신의 역할은 실질적입니다. 성신은 여러분을 가르치고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 줍니다.(로마서 5:5 참조) 약속의 성령이란 각 성약을 영원토록 유효하게 하는 성신의



확증하는 권능을 말합니다.

영을 얻으려면, 용서받지 못한 범법 없이 깨끗하고 순결한 상태로 성전에 가야 합니다. 사탄이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을 이기는 데 성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하거나 합당하지 못한 상태로 성전에 가게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은 성전 추천서를 받기 위한 합당성과 준비 상태를 살피도록 감독님이나 지부 회장님과 개인 접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 정직하고, 또 여러분을 도우려는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사실,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입장을 결정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교리와 성약 109:24 참조) 자신의 추천서에 가장 먼저 서명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합당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³

합당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현재 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생각이 올바르며, 여러분이 계명대로 생활하고 있고, 날마다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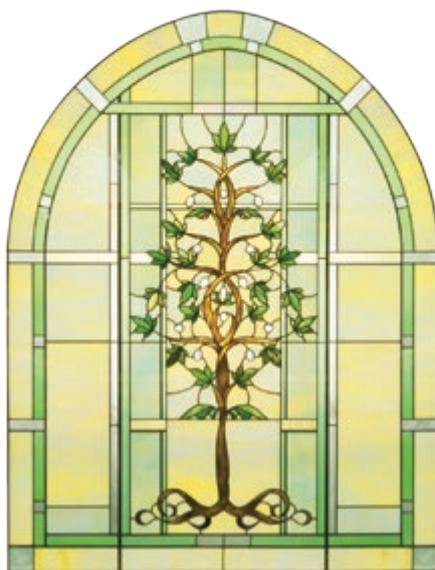
상징에서 배움을 얻으며

성전에서 주님은 경전에서처럼 상징을 사용하여 가르치십니다. 경전에서는 반석, 씨앗, 열매, 생명나무, 성찬 빵과 물 등 여러 가지 상징을 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니파이전서 11장; 엘마서 32장; 힐라맨서 5:12 참조) 침수로써의 침례는 새로운 삶, 재탄생, 깨끗해짐을 상징합니다.(로마서 6:3~5 참조) 우리는 성전에서 순결, 거룩함, 평등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습니다.

성전 내의 몇몇 상징은 물질적인 동시에 영적입니다. 예를 들어, 가먼트를 입는 것은 물질적인 상징으로서 성전 성약과 약속된 축복을 날마다 상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먼트를 존중하고 귀하게 다루면, 그것은 유혹과 불의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각 성전 의식 역시 상징적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들이 그 지위에 오르기 위해 했던 준비를 연상시키는 “신성한 의식을 통해 씻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⁴(사무엘상 10:1; 16:13 참조) 엔다우먼트 중에 주어지는 지시와 성약은 하나님으로부터 특정 권능과 약속을 입거나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누가복음 24:49 참조)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상징은 인봉 의식으로, 이 의식을 통해 부부는 영원무궁토록 이어지는, 끊을 수 없는 유대로 하나가 됩니다.

성전에서 주어지는 약속은 풍성하고도 고귀합니다. 그 약속은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 개별적으로 예비하신 “큰 은혜”이자 “큰 복”(제3니파이 10:18)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웃음을



지으십시오.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께 주시려는 가장 큰 축복을 받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십시오. 어린 시절에 이 노래를 부르며 느꼈던 그 느낌을 믿으십시오. “나 성전 보고 싶어 언젠가 갈 거야 ... 나 어린 동안 준비해 거룩한 나의 의무”⁵ 이 노랫말은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주

1. John A. Widtsoe, “Temple Worship,” *Utah Genealogical and Historical Magazine*, Apr. 1921, 91-92.
2.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함*(책자, 2002년), 1쪽.
3. 여호수아 24:22, 27 참조: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그런 후 여호수아는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이 돌이 [개인의 성전 추천서처럼]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라고 말했다.
4.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함*, 1쪽.
5. “나 성전 보고 싶어”, *어린이 노래책*, 99쪽.

우리는 왜 성전을 지을까요?

“우리는 왜 성전을 세워야 하며 왜 우리에게 의식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중대한 일들에 관해 가르침과 일깨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칙에 규칙을, 교훈에 교훈을 더해 주는 것이며, 결국 우리는 충분한 빛과 지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를 보호해 줍니다 ...

어떠한 사업도 이것보다 더 영적으로 정확시켜 주고 어떠한 사업도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이보다 더 높은 의의 표준을 요구하는 사업도 없습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은 우리를 ... 보호해 주는 방패가 됩니다 ...

만일 우리가 성전 사업에 관한 계시를 받아들여 아무 조건이나 변명 없이 성약을 맺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생의 어려운 문제를 위한 영감을 받게 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성전으로 오십시오. 와서 축복을 받으려 하십시오. 이 사업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함(소책자, 2002년), 37쪽.



용서할 방법을 찾기 위해

보니 브라운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이 한 일로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 때로 고통을 내려놓는 일은 불가능하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상처가 아무리 크더라도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가르치셨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용서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용서가 주는 평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다음은 타인을 용서한 두 청년의 이야기이다.

친구를 용서하기 위해

새 학교로 전학한 벨기에의 르네*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 수 있어 행복했다. 하지만 한 친구가 벌인 일로, 르네는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르네는 이렇게 설명했다.

“제 친구 노라는 다른 친구인 케이트의 이름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었어요. 노라는 그 프로필을 이용해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모두들 그게 다 케이트가 한 짓이라고 생각했죠. 노라는 학교에서 저를 놀려 대면서 제 종교와 성격까지도 모독했어요. 그런 공격을

피해 보려 했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노라가 가짜 프로필 이야기를 고백했을 때, 화를 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노라는 저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는데, 저도 노라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정말 화가 났죠.

그러던 어느 날, 경전을 읽다가 교리와 성약 64편 9~10절에서 이런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마땅히 서로 용서해야 하느니라. 이는 자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 받음이니, 더 큰 죄가 그에게 머물러 있음이니라.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려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이 요구되느니라.’

순간, 노라가 생각났어요. 제가 그렇게 화내는 건 옳지 않은 일이었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면서 노라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구했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노라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안부 메시지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했고, 가끔은 점심 시간에 이야기도 나누었죠. 그러다 노라가 4년 전에 아버지를 여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노라는 사는 게 힘들었고, 모두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노라에 대해 불편한 마음이 없어져서 좋았어요. 케이트와 몇몇 친구들은 어떻게 제가 노라를 용서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제가 한 일이 옳다는 것을 알았어요.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스러워하신다는 것을 알았죠.”

르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명하신다는 것을 배웠다. 그 계명을 따랐기에 르네는 노라를 안타깝게 여기고 이해하게 되었고, 완전하게 용서할 수 있었다.

오빠의 죽음 속에서도 평안을 찾기 위해

재닛의 오빠는 술에 취한 십 대들의 자동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재닛은 쓰라린 고통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방법을 알 수 없었다.

“제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을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몰지각한 십 대들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빠를 되돌려 달라는 애꿎은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제 삶에 생긴 엄청난 빈자리를 감당할 수가 없었죠. 몇 시간에 걸쳐서 처절하게 기도했던 일이 기억나네요. 제가 바란 것은 그저 오빠가 돌아오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오빠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그 남자아이들도 엄청난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불쌍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분노와 적개심도 같이 느껴졌죠. 자꾸 그 사람들을 탓하는 마음이 들었죠. 그들을 용서했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 사고가 떠오르면 분노가 밀려왔어요. 이런 생각을 자주 했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 또, 용서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수백 번을 기도하고, 금식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명상을 해도, 제가 그들을 진정으로 용서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다 하루는 생각에 잠겨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지. 당연한 거잖아? 누구나 실수를 해, 내가 누구라고 심판을 하겠어.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이제는 내려놔야지.’ 얼마나 놀라운 느낌이었는지 몰라요! 제가 정말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용서했는지 줄곧 알고 싶었는데, 그 순간이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저는 오빠에게 일어난 일을 되돌려 놓을 수는 없지만, 분노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결심할 수는 있었죠.”

재닛은 진정으로 용서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교리와 성약 88:63)

재닛은 금식과 기도, 경전 공부, 그밖의 여러 노력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 우리도 그렇게 할 때 분노와 상처를 평안과 용서의 느낌으로 바꿔 놓을 수 있다.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재닛이나 르네가 그랬듯이, 우리 역시 타인을 용서할 때 동정과 이해, 인내를 느낄 수 있게 된다. 우리가 타인을 용서할 때, 주님은 그분의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 가명을 사용함.



순수한 사랑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은 우리 눈에서 적의와 분노라는 비늘을 벗겨내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듯이, 즉 결점이 많고 불완전해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잠재력과 가치가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 [그렇게]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디이터 에프 우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공홀이 여기는 자기 공홀이 여감을 받습니다”, 리어모나, 2012년 5월호, 76쪽.

빛을 던져 주어라

미소는 행복 가득한 세상을 만듭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어 주세요.

(마태복음 5:14~16 참조)

내 삶의 음악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아노 치는 것을 그만두었지만, 이제 그 두려움을 극복할 기회가 왔다.

사브리나 드 수사 테이세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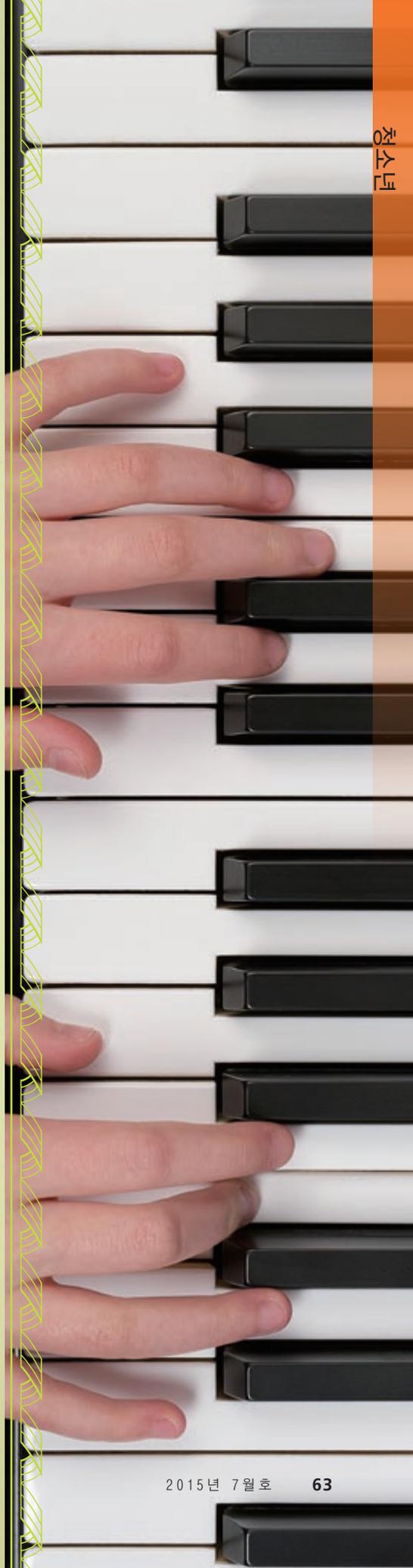
피아노를 치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계속되어 온 나의 꿈이었다. 나는 열두 살 때 나를 아껴 주시던 한 교회 회원 분에게서 피아노 치는 법을 배웠다. 나중에 아빠가 키보드를 선물해 주셨다. 하지만 성찬식 반주를 하다 당혹감을 느끼게 되면서 피아노를 치는 즐거움이 점차 사라져 갔다. 실수가 여러 번 반복되자, 수치심이 밀려와 더는 피아노를 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많이 연습하여 완벽에 가까워졌을 때에야 다시 해 보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낙담한 나는 키보드를 팔아 버렸고, 그렇게 이 재능을 감추어 버렸다. 여러 해가 지난 어느 일요일, 교회에는 반주자가 없었다. 와드에서 피아노를 치던 자매님이 이사를 갔기 때문이었다. 피아노나 오르간 반주 없이 찬송가를 부르는 회원들을 보는데, 감독님에게 이야기하라는 영의 속삭임이 느껴졌다. “제가 연주해도 될까요?” 그렇게 여쭙었더니 감독님은 승낙하셨다. 몇 년 동안 피아노를 멀리하면서 실수에 대한 두려움도 잊게 되었다.

놀랍게도, 나는 언제 그만두었냐는 듯이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몇 군데 실수는 했지만, 그다지 많이 하지는 않았다. 그 일로 힘을 얻은 나는 감독님께 일요일마다 반주를 하겠다고 제안했다.

매주 연습을 하면서 나는 다시 피아노를 좋아하게 되었다. 연습할 때마다 우리 집에 영이 강하게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내가 피아노를 치면, 집안일을 하던 식구들이 이따금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한다. 우리는 같은 찬송가를 부르며 하나가 된다.

와드 회원들은 내 발전을 알아보고 축하해 주었다. 와드 모임의 영성에 이바지할 수 있어서, 또 버려 두었던 재능을 다시 살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나는 피아노 음악의 진가를 알게 되었다. 피아노 연주에서 느껴지는 평온함은 경이로울 정도다. 나는 하늘에서도 그런 음악을 듣고 싶다. 그리고 누가 알겠는가, 내가 혹시라도 해외 왕국 합창단에서 연주하게 될지! ■
글쓴이는 브라질에 산다.





후안 에이 우세다 장로
칠십인

저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습니다

“기도하라 주 들으시리”(어린이 노래책, 6쪽)

어렸을 때 저는 부끄러움이 심한 편이라 친구를 사귀는 것을 무척 어려워했습니다. 저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이겨 내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친구와 대화하듯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는 함께 대화할 누군가가 정말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세계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면서 저에게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 후에 저는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들에게 물몬경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3니파이 17장 부분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함께하시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방식에 진심으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올바른 기도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나오는 모든 성구를 읽어 보기로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세상 일을 잊고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제 마음속의 이야기들을 말씀드립니다. 마음속에 평안과 위로가 느껴질 때, 저는 그때가 바로 하늘이 제게 열려 있는 때임을 압니다. 선교사들은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남동생, 다른 여동생은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셨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는 금식을 했고, 또 매일 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저는 알았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아직은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저의 아버지는 복음을 배우고 이해하셔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직 교회 회원이 아니라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 말씀드려 보십시오.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해 보십시오.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지하게 말씀드리십시오. 그런 다음에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도울 방법을 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친구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며,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

21절을 보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 구절을 읽으면서, 저도 하늘이 열릴 만한 그런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때로 피곤함을 느낄 때면,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떠올립니다. 저는 하늘이 제게도 열리도록 정직하고 진지하게 기도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또 어떤 때는 제 마음을 담아 낼 말을 찾을 수 없어 기도를 짧게 드릴 때도 있습니다. 저는 마음속의 여러 감정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무얼 말하고 싶어하는지 아시지요? 부디 저를 도와주세요.”

때로 음식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릴 때, 저는 그 작은 기도에도 하늘이 열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족 중에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또는 여러분의 가족이 아직 성전에서 인봉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는, 우세다 장로님의 다섯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친구이십니다.
2.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3.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아시며, 그들을 돕는 방법을 아십니다.
4. 마음을 편안히 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지휘하십니다.
5.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아시며 또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1889년 5월에 일어났다.

안나 마틸다 앤더슨은 검은 우산을 쓴 엄마와 아이다
언니 곁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저만치서
달려오는 기차가 보이자 안나는 몸이
떨렸습니다. 이 기차를 타면 스웨덴을
떠나 미국으로 가는 여행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칼슨 장로님 말씀 잘
듣고 잘 있어야 해.” 어머니가
스웨덴어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는
두 소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칼슨 장로님은
안나가 여덟 살 때부터 3년 동안 스웨덴에서 봉사한
선교사인데, 이제 그분은 미국 아이다호
주에 있는 가족에게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스웨덴에서 일어나는 박해에서
벗어나고자 어머니가 안나와
아이다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심했을 때, 칼슨 장로님은
아이들과 동행해 주겠다고
제의했습니다. 칼슨 장로님은 기차
옆에 서 계셨습니다. 장로님은
두 소녀에게 자기 쪽으로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아이다는 엄마를
꼭 껴안아 드린
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아직 엄마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안나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을 거예요.”

“엄마도 그럴 거야. 자, 이것을 명심하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곳에 가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 하나님께서는 네 말을 이해해 주실
테니까.”

안나는 엄마의 말씀을
단단히 마음에 새기며 기차에
올라 아이다 언니와 칼슨 장로님
곁에 앉았습니다. 안나는 처음 타
보는 기차에 마음이 설렘지만,
지금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머니의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기차가 너무 커서 안나의 시야에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머리 위로 솟아 있는
엄마의 검은 우산이 보이자 안나는
웃음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안나는
엄마가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차는 기적 소리와 함께 큰
연기를 내뿜으며 출발했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기차를 따라 함께 달렸습니다.

검은 우산이 안나의 눈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검은 우산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안나는 기차 유리창에
기대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안나는 또
다른 기차의 유리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 기차는 유타



안나의 여행

제시카 라슨
실화에 근거



주 솔트레이크시티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경치는 스웨덴과는 다르네, 그렇지?” 안나가 아이다에게 말했습니다.

“맞아.” 아이다가 스웨덴어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이 우리가 살 곳이야.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엄마를 모셔올 수 있어.”

엄마가 함께 오지 못했던 것은 여비에 쓸 돈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다가 미국으로 오는 데 든 경비는 유타 주 옥든에 있는 한 가족이 내 주었습니다. 아이다는 그들의 농장에 살면서 일을 해서 그 돈을 갚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안나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이모 댁에서 지낼 예정이었습니다. 안나의 이모는 몇 년 전에 유타 주에 먼저 정착해 있었습니다. 안나의 엄마는 안나가 곧 도착할 것이라는 편지를 이모에게 보내 놓았습니다.

기차에 올랐던 소녀들의 일행은 그다음에 배를 타고 북해를 건너 덴마크로 갔습니다. 그다음에는 배를 타고 영국과 아일랜드로 갔다가 대서양을 건너서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안나는 배 안에서 지낸 15일 동안 계속해서 뱃멀미에 시달렸습니다. 멀미는 뉴욕에서 유타로 가는 기차에 탄 후에야 가라앉았습니다.

“유타 주 옥든입니다!” 기차 차장이 소리쳤습니다. 안나는 영어를 몰랐지만, 도시 이름은 알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칼슨 장로님이 일어나 자신의 가방과 아이다 언니의 가방을 들자, 마음이 더욱더 무거워졌습니다.

“언니, 가야만 해?” 안나가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다는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하지만 걱정 마, 네가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하면 이모가 나와 계실 거야.”

안나는 아이다와 칼슨 장로님이 역에서 칼슨 장로님의 가족과 상봉하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칼슨 장로님의 가족은 포장 마차를 타고서 아이다호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다가 살게 될 농장에 들러 아이다를 내려 줄 것이었습니다. 이제 안나는 정말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기차는 한밤의 정적을 깨고 덜컹거리며 달렸습니다. 그리고 기차는 솔트레이크시티 역에 멈춰 섰습니다. 시계바늘이 12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가방을 단단히 붙잡고서 승강장에 뛰어내렸습니다. 안나는 지친 눈으로 이모를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안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나는 덜컹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안나는 잘못 보지 않았나 싶어 기차역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어둠 속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깜박이는 가스등 속에서 사람들 얼굴을 알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모는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안나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모두들 안나를 도와주려 하는 것 같았지만, 안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나는 인생에서 그렇게 큰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스웨덴에서 학교 친구들이 안나의 새로운 종교를 조롱할 때도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뉴욕 행 배에서 뱃멀미를 할

때에도, 엄마와 작별을 할 때에도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안나는 눈을 감고서 엄마가 하신 말씀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 하나님께서는 네 말을 이해해 주실 테니까.”

안나는 승강장에서 여행 가방을 옆에 둔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스웨덴어를 할 줄 알고, 안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 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안나는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안나를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기차를 타고 오며 만났던 독일인 가족이 보였습니다. 독일인 아주머니는 안나에게 따라오라며 손짓했습니다. 안나는 가방을 들고서 훌쩍거리며 그 가족을 따라갔습니다.

안나는 템플스퀘어 구역의 남쪽 문까지 그 가족과 동행했습니다. 안나는 완공된 아름다운 새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이쪽으로 다가오는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여성이 그곳에 도착한 이주민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다급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길은 곧 이 독일인 가족에게로 향했고 안나에게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안나와 시선이 마주치자, 그 여성은 멈춰 서서 안나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똑같이 유심히 그녀를 올려다 보던 안나의 마음에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안나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일 년 전에 유타로 먼저 떠났던 안나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도 안나를 알아보셨습니다!

선생님은 안나를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안나의 눈물을 닦아 주면서 스웨덴어로 이렇게 속삭이셨습니다. “잠에서 몇 번이나 깨어났는지 몰라. 마음속에 도착하는 이주민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던단다. 성전으로 가서 내가 아는 사람이 없나 살펴봐야 한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거든.” 선생님은 안나의 손을 잡고 이끌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나중에 안나는 이모와 이모부가 솔트레이크에서 이사하는 바람에 어머니의 편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안나 이모에게 소식을 전해 주셨고, 나흘 뒤에 이모 가족이 와서 안나를 데려가 주었습니다. 나중에 아이다와 안나는 엄마를 미국으로 모셔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집으로 걸어가면서 안나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응답해 주셨어.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내가 아는 분을 보내 주셨잖아.” ■

글쓴이는 미국 애리조나에 산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영웅을 찾아보세요.

.....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의 과거에서 영웅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조지 알, 9세, 미국 뉴멕시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적이 많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응답을 받은 것은 제가 네 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갖고 놀고 싶은 블록 장난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방으로 가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장난감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제 기도는 곧바로 응답되었습니다. 옆 방에서 그 블록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온 가족과 관련된 일입니다. 제 사촌 형 크리스천은 선교 사업에서 돌아온 지 몇 달 후에, 산악 협곡 도로를 밤 늦은 시각에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형의 차는 다른 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상대 차 운전자는 괜찮았지만, 형은 헬리콥터로 병원에 이송되어야 했습니다.

형은 온 몸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형은 혼수상태에 빠졌고, 의사들은 형이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금식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과 누나들,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들, 삼촌들, 그리고 저의 모든 사촌들은 크리스천 형을 위해 돌아가며 금식했습니다. 제가 금식을 한 날은 학교에 가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 식사를 거르는 이유를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저의 사촌 형을 위해 금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결국 크리스천 형은 혼수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직 완전히 다 나은 것은 아니지만, 형은 어느 정도 몸이 좋아졌습니다. 사촌 형이 다 나으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사촌 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신다면, 어떤 일이든 다 가능합니다. ■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날 따르라

(쉽게 편곡한 노래)

작사: 존 니콜슨
작곡: 새뮤얼 맥버니

겸손하게 ♩ = 69-76

1. 날 따 르 라 주 말 씬 하 니
2. 날 따 르 라 주 말 씬 하 니
3. 현 세 세 상 오 는 우 세 - 리 씬 가
4. 이 세 세 상 오 는 우 세 - 리 씬 가 도

3 2 5 2

5 2

A7 Dm G C

3 주 승 주 주 발 고 님 따 자 한 을 르 취 빛 따 기 따 진 라 가 세
3 주 승 주 주 발 고 님 따 자 한 을 르 취 빛 따 기 따 진 라 가 세
3 주 승 주 주 발 고 님 따 자 한 을 르 취 빛 따 기 따 진 라 가 세
3 주 승 주 주 발 고 님 따 자 한 을 르 취 빛 따 기 따 진 라 가 세

5 4 5 5

Cm Gm D7 G

3 하 마 더 우 나 음 거 리 님 을 록 의 사 감 한 주 랑 동 천 님 하 케 국 과 시 하 서 함 는 고 도 계

5 5 3 2 1

G7 C D7 G7 C

4 독 선 주 천 생 행 님 국 자 하 을 상 와 라 따 속 하 권 라 받 나 고 가 으 되 하 리 리 네 라 라

4 1 3 1

© 2015 Intellectual Reserve, Inc. 저작권 소유.
이 노래는 교회나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음.
복사할 때마다 이 저작권 표시를 포함해야 함.

달란트의 비유

진 빙엄

예 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위해 일하는 세 사람에게 얼마간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은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는 사이, 남은 두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돌려주려고 그 돈을 활용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사람은 혹시라도 돈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서 돈을 그냥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마침내 돈을 빌려주었던 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빌려준 돈을 더 많이 늘린 두 사람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늘리려고 애쓰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주었던 돈마저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5:14~29 참조)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귀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사랑을 표현하고, 달리기를 잘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과 같은 특별한 능력 또는 재능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여러분은 재능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고 키움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더 큰 행복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더 알아보기

재능(영어로는 talent이고, 이 단어는 텔런트라고 읽어요.)이란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특별한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달란트(talent: 재능을 뜻하는 영어와 똑같은 말이에요.)란 단어는 큰 돈의 단위를 말하는 용어였습니다. 이 두 가지의 달란트(talent)는 어떤 면에서 비슷하나요?



가족 재능 발표

재능을 나눌 발표회를 계획해 보세요.

1. 글 낭독하기, 음식 만들기, 음악적인 재능,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 것, 재주넘기, 함박웃음 짓기 등 가족들이 각자 잘하는 무언가를 발표하게 합니다.
2. 한 사람이 재능 발표를 마칠 때마다 나머지 가족들은 그 사람이 무엇을 잘했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3. 가족들 각각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을 섞어서 맛있는 과일 샐러드를 만들어 다과로 씁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보여주세요!

장소: _____
날짜: _____
시간: _____

다과로 쓸 과일을 가져와 주세요!

liahona.lds.org에서 초청장을 여러 장 인쇄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대화하기

가족들에게 각자 자신에게 있는 재능을 최소 한 가지씩 이야기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표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가족들에게 서로의 재능을 잘 찾아보고 날마다 진심 어린 칭찬을 하는 과제를 주세요.

노래: "골짜기 흐르는 시냇물"(어린이 노래책, 116쪽)

성구: 교리와 성약 46:11

영상 자료: Biblevideos.org에서 "달란트의 비유"를 시청하세요.

경전 공부 도움말

경전 이야기를 연극처럼 해 보면 그 이야기를 재미있게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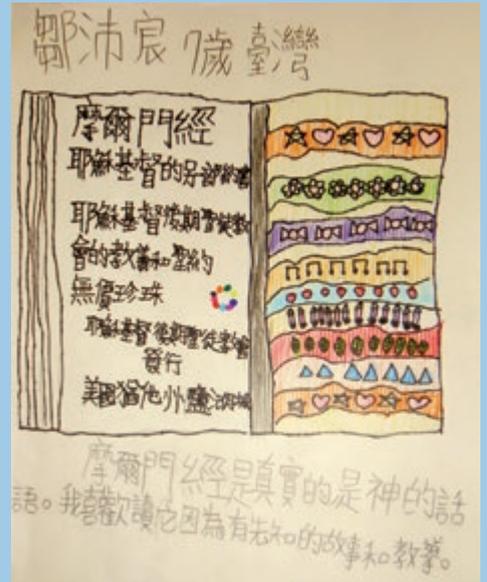
1. 이야기에 나오는 어떤 인물을 연기해야 하는지 각 사람에게 정해 주세요. 목욕 가운이나 종이로 만든 동전 같은 간단한 의상이나 소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 한 사람에게는 이야기를 읽어 달라고 하고, 구절마다 잠시 멈추게 해서 연기자들이 방금 읽은 내용을 연기해 보게 합니다.
3. 모든 사람이 참여해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다시 연기해 봅니다.

우리들 이야기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위해 기도했어요
 3학년 때, 연말 파티에 간 적이 있는데 파티에 모인 사람들은 다들 물을 뿌리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신의 도움으로 기분이 나아졌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두에게서 벗어나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크리스티나 브이, 11세, 우루과이



몰몬경은 참됩니다. 몰몬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몰몬경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 몰몬경에는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트 페이 첸, 7세, 대만



저는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좋아하고, 가족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고, 놀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그린 커틀랜드 성전입니다.
레오나르도 지, 7세, 베네수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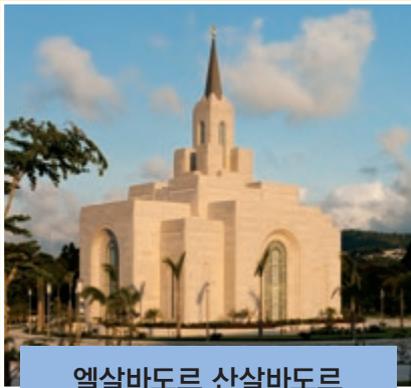
호아킨 브이, 9세, 미국 캘리포니아

성전 카드

이 장을 잘라서 두꺼운 종이에 풀칠하여 붙인 다음, 카드를 오려 냅니다.
 카드를 더 많이 인쇄하고 싶거나 다른 성전 카드들도 찾아보고 싶다면, liahona.lds.org를 이용하세요.



우크라이나 키예프
 2010년 8월 29일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헌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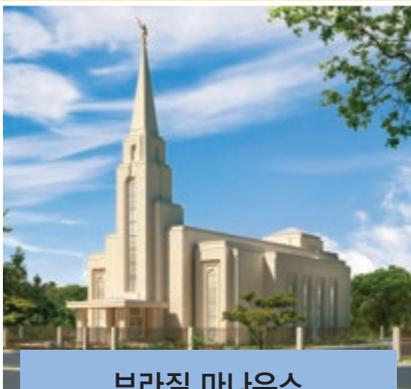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2011년 8월 21일에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이 헌납함.



과테말라 케트살테낭고
 2011년 12월 11일에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헌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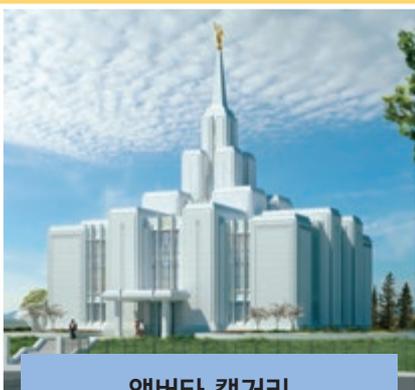
미주리 캔자스시티
 2012년 5월 6일 일요일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헌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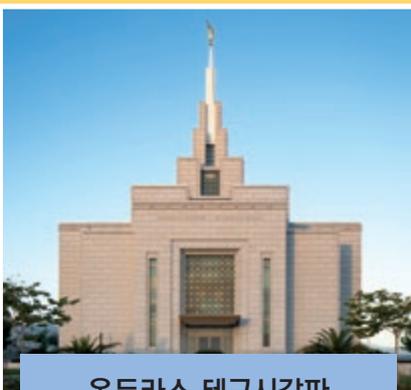
브라질 마나우스
 2012년 6월 10일 일요일에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헌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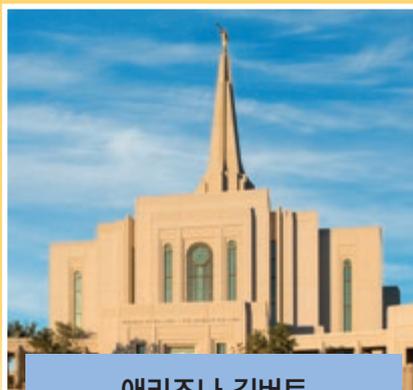
유타 브리검시티
 2012년 9월 23일에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이 헌납함.



앨버타 캘거리
 2012년 10월 28일 일요일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헌납함.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2013년 3월 17일 일요일에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헌납함.



애리조나 길버트
 2014년 3월 2일 일요일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헌납함.

성전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하나요?

캐럴린 콜턴

성전은 주님의 집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침례와 같은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합니다. 또 성약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와 맺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받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날은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



침례탕

열두 살이 되면 침례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침례탕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황소들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해의 왕국실

해의 왕국실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날들이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할지를 기억하게 해 줍니다.

맨 오른쪽 가운데 사진: 서머 레이첼 데라, 심화: 브레틀리 클라크



열두 살이 되면 여러분만의 성전 추천서를 받기 위해 감독님과 접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침례를 하기 위해 성전에 갈 수 있습니다.



인봉실

가족은 이와 같은 인봉실에서 영원을 위해 함께 인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하나님 집이니
사랑이 넘치는 곳
나 어린 동안 준비해
거룩한 나의 의무

(“나 성전 보고 싶어”,
어린이 노래책, 99쪽)

세계 곳곳에 있는 성전
사진을 보려면, temples.
lds.org로 가서 “Gallery”
를 클릭합니다.



의식실

우리는 이와 같은 의식실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을 배우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 수 있게 해 주는 성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창조, 아담과 이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웁니다. 또한 우리가 충실하다면 다음 세상에서 어떤 축복들을 받게 되는지를 배웁니다.

위부터 오른쪽: 헤이 왕국실, 종래방, 의식실, 인봉실 사진

언젠가 갈 거야

메리 앤, 12세, 미국 메릴랜드

요 두 살이 되어 갈 무렵, 나는 이제 곧 성전에 가게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척 설렘다. 나는 가족들과 성전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성전 내부 사진도 살펴보았다.

성전에 대리 침례를 하러 가기 몇 주 전에는 가족과 함께 특별한 가정의 밤을 했다. 우리는 몇몇 조상에 관한 훌륭한 이야기를 들었다. 또 그분들이 어디에 사셨고, 또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배웠다. 우리 고조할아버지는 벼락을 맞고도 목숨을 잃지 않으셨다고 한다! 우리의 조상 중 몇 분은 영국에서 오셨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동생들과 함께 영국 국기 그림에 색칠을 해 보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분들과 조금은 하나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성전 안은 바깥 못지 않게 아름다웠다. 성전에서 뵈는 분들은 모두 친절했다. 성전은 따스하고 평화로운 영이 있는 곳이었다. 그런 기분을 느낀 건 난생 처음이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모는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친족들의 이름을 몇 개 가져오셨다. 나는



엄마와 이모와 함께 기다리는 동안, 그 이름들의 여성들이 3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을 때의 광경을 상상해 보았다. 아빠가 그분들을 위해 나에게 침례를 주신 일도 아주 특별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니, 천사들로 둘러싸인 듯한 기분이 들었다. 성전은 마치 지상에 있는 천국같다. ■

처음으로 성전에 갈 때에는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기대되는 것들을 부모님이나 교사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성전 내부 사진들을 살펴보세요.
추천서를 받기 위해 감독님과 만날 약속을 잡으세요. 감독님은 여러분의 간증과 계명을 지키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상을 찾아보세요.
가능하면, 여러분이 대리 침례를 해 드릴 만한 조상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FamilySearch.org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신이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런 다음,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에 가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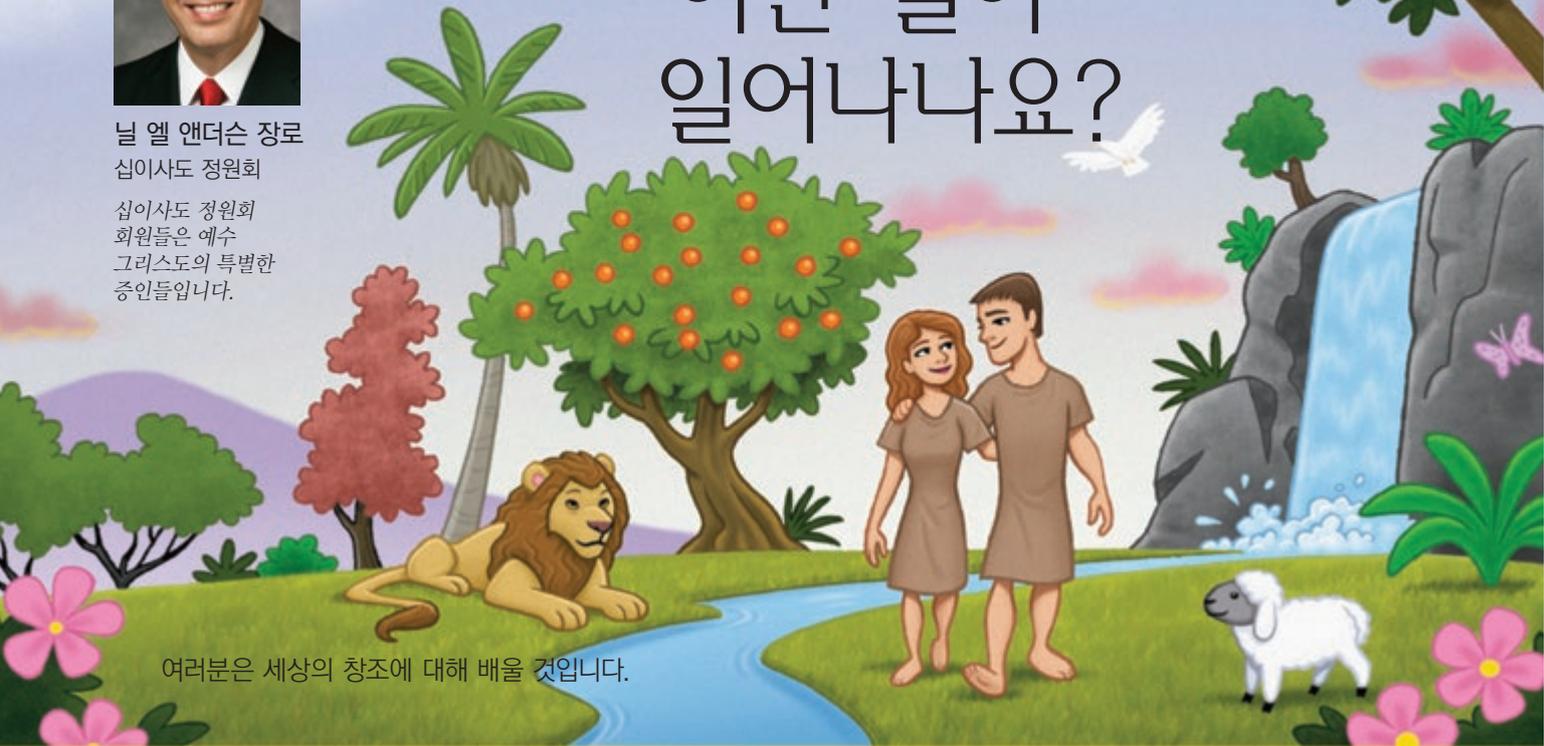
특별한 증인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은 세상의 창조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구주의 평화로
여러분은 염려와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삶이 힘들 때,
여러분은 강하게
서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회오리 바람”,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18~21쪽에서.



제임스 이 파우스트
(1920~2007)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어린 양과 목자 양

제 어린 친구는 폭풍우가 무서워 울었으며,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의 아버지께서 사막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미가 있는 양 때는 이미 이동해 버렸고 그 새끼 양은 어찌다가 어미와 떨어지게 되었는데, 목자도 그 새끼 양을 잃은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막에서 새끼 양이 혼자 살아남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양을 안고 집으로 오셨습니다. 양을 그 자리에 남겨 둔다는 것은, 코요테의 먹이가 되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 젖을 먹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굶어 죽거나 해서, 결국 죽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일부 양치기들은 이런 새끼 양을 “부랑자”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그 새끼 양을 제게 주시면서 맡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몇 주 동안 저는 암소 젖을 우유병에 담아 데워서 새끼 양에게 먹였습니다. 우리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이유는 기억나지 않지만, 저는 양에게 나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양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저는 풀밭에서 양을 데리고 뛰어 놀았습니다. 가끔 양을 데리고 풀밭에 함께 누워 보드랍고 복슬복슬한



양의 배에 머리를 대고서 파란 하늘과 하얗게 굽이치는 구름을 올려다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낮에 양을 가둬 놓지 않았습니다. 양도 달아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양은 금세 풀을 뜯어 먹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뜰 어디에서든 매, 매, 하며 양의 울음소리를 아주 비슷하게 흉내 내어 제 양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강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양을 우리에게 넣어 주어야 했으나 그날 밤 저는 그 일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제 어린 친구는 폭풍우가 무서워 울었으며,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저는 안전하고 따뜻하며 보송보송한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고 싶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야 했으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양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가 울음소리를 듣고 와서 물어 죽인 것입니다.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아버지께서 믿고 맡기신 그 양에게 저는 선한 목자나 청지기가 되어 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얘야, 양 한 마리도 제대로 돌볼 수 없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씀이 제 친구를 잃은 것보다 더 가슴 아팠습니다. 어린 소년이었던 저는 그날, 만일 기회가 다시 있다면 결코 다시는 목자로서 저의 청지기 직분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육십 년이 지난 지금도, 어린 시절에 제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그 양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들립니다. “얘야, 양 한 마리도 제대로 돌볼 수 없었니?”라고 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찬 나무람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훌륭한 목자가 되지 못한다면 영원한 세상에서 어떤 것을 느끼게 될지 궁금합니다. ■

제임스 이 파우스트, “목자의 책임”, 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45, 47쪽에서 발췌함.

통찰



마다가스카의 라솔로 가족은 그들이 사는 외진 지역의 개척자이다.

만약 나에게 개척자 조상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초기 교회 개척자들의 신앙과 용기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당시 제 조상들은 바다 건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나부나 윈터쿼터스에 살았던 사람도, 평원을 횡단하여 여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회원으로서 저는 이 개척자들의 유산을 저의 것으로 여기고 감사와 긍지를 느낍니다. 똑같은 기쁨으로, 저는 세계 전역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개척자들이 남긴 유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의 인내와 신앙, 희생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 왕국의 위대한 후기 성도 찬송가 가사로 덧붙일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

청년 성인

생기와 채우라 활기로

이 기사에서 소개하는 습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한다면, 더 나은 건강, 더 힘찬 활력, 더 큰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42쪽

청소년

52쪽



멜기세덱 신권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이런 가르침은 신권 맹세와 성약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린이

안나의 여행

미국에 온 안나가 기차에서 내렸을 때 그녀는 혼자였고 아무도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안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해하신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66쪽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4

KOREAN
0212567320

4